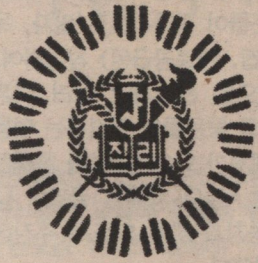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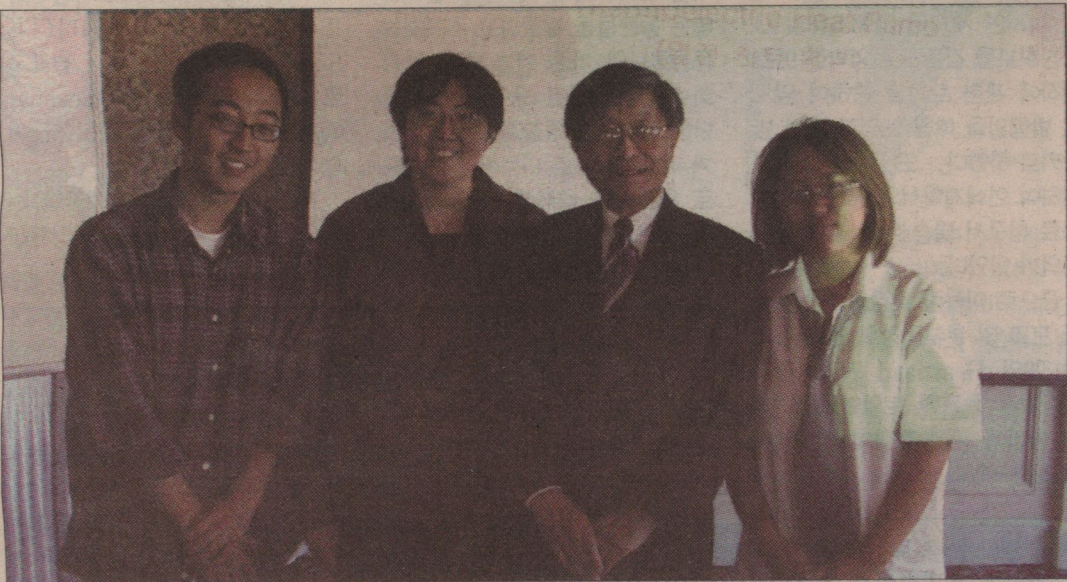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ynlee@htrdlt.com
website :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李龍洛
편집인 : 김정수

월간 91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1년 9월 28일



모교 대학신문의 방미취재단이 21일 오후에 귀국중인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을 서울의 학술 Seminar장으로 찾아 인사드리다. (사진 좌로부터) 취재단 송재용, 서지현 기자와 이회장 및 석현애기자.

李회장 母校와 총동창회 방문

이기준총장 재미동문들의 지원에 감사, 지속적 후원 당부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모교와 서울의 총동창회를 방문하고 재미동창회의 제반사업과 모교의 발전현황을 시찰하였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교의 관악 캠퍼스를 방문하여 이기준 총장으로부터 학교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 총장은 모교가 당면하는 문제중에서 학교 경영의 財源 부족 문제를 언급하였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수입 (사립대학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등록금, 정부공공 예산의 한도 및 기타 지방 국립대학과의 균형관계 등)으로 필요한 특별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공공예산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으로부터 기여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인 바 이 총장은 재미 동문들의 지금까지 모교를 위하여 보여준 열성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모교에 기탁된 30만불의 기금의 모교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을 다짐하였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총장은 모교와 미주지역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교의 음악대학 재학생중에서 선발하여 구성된 연주단을 미주에 파견 순회공연할 것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이에 이용락 회장은, 이 구상은 지난 6월 시카고에서 있었던 평의원회때 각 지역의 평의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모교에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재미 동창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李회장은, 모교가 세계 선진 대학과 견주어 손색없이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재미동문들의 뜻을

피력하였고, 모교의 발전계획 성안과 추진과정에 있어 동문 및 동창회원들의 건설적이 제안 등이 학교의 학사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하였고, 외국 유수한 대학에서 동문들의 대화와 적극적인 압력들이 갖는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지난해 시카고대학의 학부정원 확대와 학부 교과과정의 개편논의 과정에서 인문사회 고전교육을 중요시하는 전통의 유지와, 더불어 기술발전과 사회조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세대의 다양한 욕구들도 교과과정개편에 반영코자하는 학교 행정 담당자들의 계획은 동문들 간에도 활발한 찬반 토론이 있었고, 급기야는 총장이 교체되기에 이르렀음).

이 총장은 재미 동문들의 이러한 모교의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동문들의 여론과 제안들을 모교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또 총동창회 회관이 관악 캠퍼스내에 이주하여 총동창회와 모교와의 원활한 교류와 유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 회장의 모교방문시 총장실에서 있던 토론에는 모교의 음대학장, 교무처장 및 부처장이 참여하였다.

이어 이회장은 14일 저녁 6시 반 신라호텔에서 총동창회의 임원진과 만나 총동창회와 재미 총동창회의 공동관심사를 의논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미 총동창회 본부의 시카고 이전 이후 첫 발행된 재미동창회보 90호(李회장이 직접 가지고 가서 배포함)에 대한 총동창회 임원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재순 총동창회장, 임광수 수석부회장 손일근 상근부회장, 홍성대 부회장, 이달수 전 공대 동창회장, 이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2면에 계속>

모교 대학신문 기자단 우수 4개 대학 취재차 訪美

모교 발전을 위하여 총동창회에서 지원

대학신문사에서는 “세계의 대학을 가다”라는 기획 기사의 일환으로, 명실공히 세계 고등교육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대학을 취재하기로 하였다.

1학기에 순방한 아시아 지역의 북경대, 동경대 하노이대학에 이어, 2학기 중에는 5회에 걸쳐 미국의 대학교육을 소개하기로 하고, Harvard, MIT, Stanford, UC Berkeley를 집중 취재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신문사의 기자단, 서지현(사회대 '98년 입학), 석현애(사대 '99년 입학), 송재용(인문대 '00입학) 3명이 9월 29일

부터 10월 8일까지 일정으로 취재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번 기획 취재의 주요 과제는, 첫째 고등교육이 미국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셋째 고등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넷째,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여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동기를 부여시킬 것인가. 다섯째,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확보하고 교육의 지원시설을 확충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하버드대학에서는 엘리트주의를 취재기 위해 학생처장을 인터뷰하고, 재정확충현황을 파악키위해 기부금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학생들의 캠퍼스생활을 취재한다. MIT대학에서는 정보화 수준을 집중 취재하고 同校의 서남표교수(기계공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 교육처리방법을 취재한다. 산학협동의 산실, Stanford 대학에서는 산학협동의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Richard Dasher 교수와 인터뷰로 설명을 듣는다. 자유로운 학풍으로 주립대의 명맥을 잇는 UC Berkeley를 탐방하여 학교와 사회, 그 연결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연합 좌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들 3명 기자단의 취재여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재미 총동창회에서 모교돕기 100만불기금에서 이들의 항공료를 부담하고, 기자단이 각 대학에 기숙사에 묵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바, 뉴잉글랜드 지역동문회(회장 이재신)에서 기꺼이 어린 후배들을 위하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Boston공항출영과 자택에 초청하기를 자원했기 때문이다. 윤상래 동문, 변종원 동문께 재미 동창회는 감사드리다.

이번 취재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후배들은 미주지역 동창회의 지원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국 대학의 참모습을 소개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3면
- 제 3부 : 남북한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제2차 상임위원회, 신문위원회 개최

새동문 발굴, 관악후원회원 확충 및 동창회보의 제작과정 재검토

지난 9월 7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동창회 본부 사무실에서 제2차 상임위원회 및 신문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이용락 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김현옥 재무국장, 정호 출판국장, 장기남 섭외국장, 이윤모 논설위원장, 임이섭 실행편집위원 및 김정수 회보편집인이 참석하여 (송순영 관악후원회 부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오홍조, 수석 부회장은 LA거주), 구경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동창회 사업 및 신문제작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총동창회 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여, 재미총동창회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증보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우선 이를 위하여 많은 동문들이 회원으로 있는 재미과학기술자협

회 회원 명부를 입수하여 동창회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동문들을 입력시키고,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의과대학 동문회 및 각 지역동창회의 새 주소록을 입수하고, 또 유동회원인 학생동문 및 해외주재 공무원, 지상사 주재원 동문들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여, 회보 유료구독자 확대와 관악후원회 이사 및 백만불기금의 증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어 관악후원회 활성화방안에 토의가 이용락 회장의 강력한 제안으로 있었는데, 회원명단 확보를 위하여 임원들이 지역을 분담하여 전화 독촉을 하자는 결정을 보였다. 우선 시카고 지역에 서부터 의과대학은 한재은 동문, 문리대 송순영 동문, 공과대학은 조대현동문이 담당하여 관악후원

회 참가를 독려,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타 단과대학들도 회원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관악후원회비 납부자에게는 감사편지, 기념품 및 관악후원회이사 위촉장을 보내기를 하였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 제작된 제90호(8월호) 동창회보를 검토하고 임박한 91호 제작에 관한 토의를 통하여 앞으로 발행일을 매월 28일로 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 신문발송과 관련하여 인쇄계약서의 명문화와 구독료 청구서 발송 위탁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끝으로 이용락 회장의 9월중 서울 모교 및 본부동창회 방문과, 9월 29일 Heartland 지역동창회 순방일정에 관한 토의있었고, 기타 안건에 관한 토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다.

<1면 이용락회장 총동창회 계속>

참석한 서울동창회 임원들은, 보다 좋은 인쇄기술로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모양있는 동창회보 제작되기를 바랐고(예를 들면 1면의 미시간호수의 시카고 전경의 의미), 전자 미디어의 영향등으로 활자화된 출판물에 대한 독자들의 흡수력의 저하에 따라, 동창회보 제작도 이런 출판물 추세에 따라 독자들에게 친근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회장은 재미 동창회의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리고 많은 동문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동창회보의 기존 기능 외에 동창회보를 유익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격조있는 동창회보를 편집하기 위하여 3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제1부, 총동창회소식, 제2부, 동문 및 전문가들의 글을 모은 분필과 논고의 장 및 개

별 동문과 지역동창회의 소식을 모은 제3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재미동창회보에 제작과정에 동문들이 적극적으로(필자, 독자, 편집, 자료공급원) 참여하여, 지리적으로 산재하고 여러 다른 세대간의 동문들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매체가 되어 "母校를 高揚하고 知性人들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 회장은 귀국기간동안 9월 21일과 9월24일 2차에 걸쳐 "Thermoelectric Technology"에 관하여 서울 Palace Hotel과 경주의 조선히otel에서 열린 세미나(TE Solution Inc. 후원)에서 발표자로 참가하였고 Seoul의 Seminar에는 50여명의 사계 전문인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용락 박사(기계공학)는 21일 서울의 전자신문과 인터뷰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

For My Funeral

Sang-Bong Lee <이상봉 · 문리대 65입, Ph.D., 국제시인협회 특별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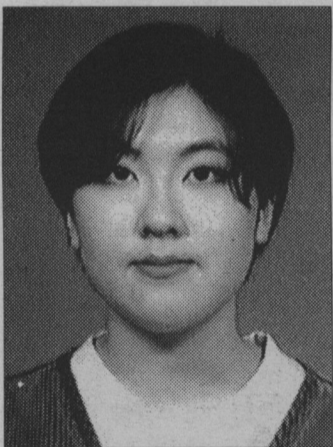
When my last exhalation happens,
When I drop all that I am carrying.

Please help me,
For the last thing that is my dead body,
Call the drummers, singers and dancers,
Thus march toward my cremation place.

Celebrate my freedom from the bondage
With the songs, dances and hands clapping.

So let the divine know
My soul is freed from the bondage,
And goes away toward the nothingness,
Like as incense is dispersed.

방미 대학신문 취재기자단



서지현 <단장 · 사회대 4학년>



석현혜 <사범대 3학년>



송재용 <인문대 2학년>

근조(謹弔)

재미(在美)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들은 2001년 9월 11일 출근시간에 발생한, 민간인(民間人)이 탑승한 여객기를 납치하여 민간인(民間人)이 밀집하여 일하고 있는 The World Trade Center로 몰아가 폭파함으로써 6000여명의 무고한 인명(人命)을 살상(殺傷)한 그 만행(蠻行)을 반인본주의(反人本主義)와 반문명주의(反文明主義)로 규탄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弔意)를 표하고, 그 유가족(遺家族)들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마을로 좁아진 전세계에 인본주의(人本主義)와 인권주의(人權主義)에 입각한 정의(正義)로운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재미 서울대학교 중동창회 회원 일동

서울의대 Minority 여학생 시절

이혜원 <Mrs. 한혜원 · 의대 61년 졸>

딸만 여섯인 집안에서 자라 남학생만 있는 교실에 첫발을 들여놓던 공포감 아직도 생생해

이미 39년 전이 되어버린 의과대학 시절을 회상하려니 놀랍게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과거 젊은 시절의 회상과 함께 사니까 자신이 늙어감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딸만 여섯이고,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살다가 남자가 절대 다수였던 의예과 교실에 떨어서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공포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모두들 서울대학에 들었다고 자랑스러이 검은 끈의 교복을 입은 고슴도치 머리의 남학생으로 딱찬 방은, 우리 세 여학생의 기를 완전히 꺾어 주었다. 하고 싶은 질문도 못하고, 옆에서 일부러 우리까지 들으라고 웃기는 농담을 해도 웃어주면 오해받을까봐 참는 일도 많았다. 예과 때는 우리 모두가(李)씨인 여학생은 1반에 있었는데 2반의 익살꾼 몇이 와서 큰소리로 "너희들 여학생 있다고 재지마"하더니, 소년 티도 채 못 벗었던 모습들도 눈에 선하다. 우리 여학생 셋은 같이 나란히 앉아 있곤 했는데 자주 내 앞자리에 머리통이 큰 이갑순씨가 자리잡곤 했다. 강의하는 교수를 불러치면 바로 앞에 그의 뒷머리가 시야를 가로막곤 했다. 아직 머리가 채 자라지 않아 옛 고등학생 머리여서 유달리 두드러져 보이던 processus occipitus를 들여다보다가 강의를 못 듣곤 했다.

내가 그 강의 성적이 좋지 않았으면 그것은 이갑순씨 책임이라고 해야겠다. 월반을 했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기백은 야만에 가깝게 너무나 당당해서 굉장히 남성적이라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가끔 손으로 자기 발바닥을 쓸곤 하는 데는 질색이었다.

나는 얘기하고 사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남존여비의 침압인 서울의대에 들어 간데다가 종원, 명숙 두 사립은 서울 양반 규수로 여자들 중에서도 제일 얌전하고 말이 없는 판이니 나도 할 수 없이 이 두사립식대로 따라가야 했었다. 이려고 6년을 지냈으니 지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다행이라고 감사해 한다.

예과시절에는 휴강 시간이 제일 괴로운 것 중의 하나였다(본과 때는 여학생 방이 있었다). 남학생들은 그럴 때면 여기저기 모여서 자유로이 떠들고 크게 웃고 있는데 우리 셋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갖고 다니는 소설책이나 교과서 책을 봐야 했다.

짚곳은 남학생들이 붙인 콩알이란 별명 덕분에 동급생 한수웅과 인연을 맺고

예과에 들어가 몇 달 후인 어느 날 우리 셋이 점심을 끝내고 들어왔을 때였다. 교실 여기저기 남아있던 학생들이 킁킁대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하던 우리들에게 칠판을 가리켰다. 우리 셋의 이름 옆에 하나씩 별명을 붙여 놓은 것이다. 해골, 두꺼비, 콩알, 참 여



자한테 이렇게 끔찍한 단어를 일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네들 눈에는 이런 것들로 밖에 비치지 않았는가 하니 서글펐다. 그러나 별명치고 좋게 붙이는 것은 없는 법이니, 해골이나 두꺼비보다는 콩알이 덜 끔찍하다는 동생들의 위로로 상한 기분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이 별명이 6년 후에 나를 거의 울게 만들고 그 기회로 지금은 남편이 된 한수웅씨와 인연이 맺어진 것을 보면 이것을 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본과 4학년 때 시계탑 건물의 A강의실에서 막 피부과 강의를 듣고 난 때였다. 피부과 강의시간에는 피부병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점들을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 그런데 그 반점의 색깔, 모양, 그리고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부과 강의 시간에는 반점의 size를 pin point, coin size, bean size, palm size 등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때는 한 여학생은 휴학을 하여 우리 여학생은 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앞 줄에 주홍재, 오원환, 한수웅, 홍창기등의 공부벌레 남학생들 여럿

이 앉곤 했다. 휴식 시간이어서 우리 둘이 막 일어서는데 "무어 좀 여쭙 봐도 됩니까?" 하고 한수웅씨가 약간 짓궂은 웃음을 띄우며 돌아보는 것이었다. "야! 너 또 왜 그러는 거야? 그만 뒤" 하고 주홍재씨가 말하는 척했으나 그들도 호기심이 난 표정으로 미소를 띠고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 말씀하세요"하고 내가 대답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앞 학년 여학생들(10명이나 됐고 그네들은 씩씩했다)은 남학생들과 애, 재, 해라를 하는데 우리 class는 정중히 존대어를 쓰고 있었다. 한수웅씨는 일어서서 잠시 주춤더니 더 짓궂은 얼굴로 "저 bean size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터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양쪽에서 한수웅씨를 쥐어박으며, "애 자식이 그런 것 묻냐?" 하며 밀어 앉히는 그들의 모습을 옆으로 보며 우리 둘은 총총히 강의실 옆의 여학생 방으로 내려왔다. 나는 겨우 bean으로 밖에 안 보이는구나 하고 속으로기가 막혀 한탄해 하는 것을 명숙이가 무어라고 위안해 주었으나, 나는 혼자 분한 생각으로 꼴뽕해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며칠 후 경전병원 임상실습을 끝내고 오후 강의실에 조금 일찍 들어와 내 자리에 앉았더니 거의 빈 교실에 바로 앞자리에 한수웅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돌아서며 요새 보이지 않으시는데(역시 존대어이다) 어디 실습 하냐고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 답지 않은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경전병원에 나간다"고 하자, 이따가 좀 만날 수 있냐고, 지난 번 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곧 들어온 명숙에게 꼭 나는 죄짓는 것 같아서 저 남학생 만난다고,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그 얌전한 명숙이도 이번에는 짓궂은 웃음을 띠면서,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했다.

결국 그날 저녁 다방에서 마주 앉으니 갑자기 할 대화도 없어야

색하게 오랜지쥬스만 마시다가 헤어진 것이다. 일년 후야 다시 연결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으니 별명의 덕을 단단히 본 셈이다.

본과 1학년이 되어 우리 대학 강당에서 성기준 교수가 해부학 강의 할 때였다.

reproductive system에 들어갔던 때여서 Gray's anatomy 책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노출된 생식기들을 보며 속으로 겸연쩍게 느끼고 있을 때였다. 어두워진 강당의 앞 스크린에 갑자기 바로 걱정하던 남자의 것이 나타났다. 앞에 앉았던 남학생들도 뒤의 우리들을 의식하고 면구스러웠던지 그중의 한 살림인 이희백씨가 나직이 "야! 로케트 같구나"했다. 하마터면 크게 웃을 뻔한 것을 급히 참느라 고생하던 일이 아직 생생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 것이 적나라하게 큰 스크린에 나타나 어디 숨고 싶을 정도여서 그만 교수님 강의를 다 놓쳤던 것이다.

예과 때였던가? 서울대학 신문에 실렸던 우리 반 학생 정의철씨의 "헬릿의 고백"을 읽고 너무나 그의 깊은 지식에 감탄하였었다. 나는 셰익스피어 영어는 한 줄도 쉽게 읽어지지 않던데 그 남학생은 그 해설까지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다.

본과 3학년 때 경전병원 ENT를 돌 때였다. 그때는 team을 4사람으로 짜 있어서 우리 여자 셋에 남학생이 하나 끼었다. 고막을 보는 실습이라 초년병 세여학생이 이병윤씨의 귀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면서 어떻게 보이는 지도 모를 고막을 찾고 있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으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된다.

다재(多才) 다능(多能) 했던 남학생들

우리 반에는 노래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의예과 시절 독일어 시간에 자장가가 나오자, 누구 노래 시켜요 하는가 했더니, 한쪽 구석에서 "Schlufe, Schlufe...."하며 슈벨트의 자장가를 부르던 이현수씨의 아름다운 테너, 그 후 더 자주 대표로 여러 가지 독창을 하던 하상배씨의 역시 미성년 테너, 주로 앙상블로 잘들 부르시던 신광승씨를 위시한 남학생들의 사중창, 한 번 나도 끼어 봤으면 하던 때가 많았다. 본과에 들어가면서 대의원들이 대두했는데 김창호, 신요철씨 등 약간 어깨 과들의 출마 연설들에서, 이제는 성인 틀이 잡혀가는 남성들의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도 여학교에 있었으면 거기 참석도 했겠지만 워낙 minority인 우리들로서는 아예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4면에 계속>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南北韓 관계 특집기사(*)>

- 1. 한혜원 - 의대 학생시절 3면
- 2. 주성은 - 미시간 호수 5면
- * 3. 백기완 - 어머니전상서 6면
- 4. 윤상래 - 효자상 6면
- * 5. 고병철 - 남북한 관계의 전망 7·12면
- * 6. 전방남 - 경제통계로 본 북한 경제 8면
- * 7. 이대기 - 북한 화폐의 교환비율 9면
- * 8. 김봉현 - 한국의 통일정책과 해외교포 10면
- 9. 김수현 - 진한감동의 향연, 조수미 독창회 10면
- 10. 김일훈 - 정국 인사 11면
- * 11. 백순 - 사랑은 오래 참고<북한방문기> 12면
- 12. 신용하 - 서울대는 서울대에 맡겨라 13면
- 13. 장기남 - 남편의 십계명 14면

남북한 관계특집을 읽고 난 동문들 논평을 기다림

<편집자주> 이번 호의 2부, 문필(文筆)과 논고(論考)에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冷戰) 상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전(熱戰) 상태로 남아있는 남북한(南北韓) 관계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동문들의 글을 모아 특집을 삼았다.

그 외에 통일의 열망을 극명하게 바른 국어로 쓴 민중운동가 백기완씨의 북한에 두고 온 모친에게 드리는 서한문(1994년)과 동문들의 글을 이어 곁들였다.

여기 실린 글들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들께서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이를 모아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지성인들의 논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편집자는 동문들의 다양한 주제의 원고와 풍부한 내용 구성을 위한 조언과 비평을 보내 주시면, 우리 동문들이 만들고 읽는 창의적이고 품위 있는 교양지를 동창회보 속에서 만들어 보고자 한다.

<3면 서울의대서 계속>

다행히 4학년 때 CPC (clinical pathology conference)에 한번 나갈 찬스를 주어 정말 처음으로 여러 학년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영어로 case presentation 하고 한국말로 discuss하던 그 날을 아직도 기쁨으로 회상하곤 한다.

음악을 즐기던 학생들도 많았다. 그 없던 환경에서도 역시 정신적인 낭만들을 꿈꾸고 즐기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예과 때 처음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이희동씨가 주선하였다.

처음 음악이 경쾌하게 귀전을 울리는데 그 학생이 옆의 칠판에 "세 빌리아의 이발사"라고 썼다. 이발사가 오페라에서 무얼 하는 걸까 하며 그때 처음 들던 로씨니의 빠르고, 통쾌한 독특한 멜로디가 아직도 귀에 쩡쨍하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 문화회관, 동화 백화점, 르네상스등 찾아다니며 늘 더 듣고 싶은 아쉬움을 안고 베토벤, 베르디,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현재의 처지를 다시 감사하게 된다.

미국 교과서를 쓰게 되고 본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더 leadership을 보여준 재사 박승균씨의 공로가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대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와 말해도, 또 우리가 가서 물어봐도 (주로 내가 대표로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말이 없어서 참 좋았다. 특히 4학년이 되면서 박승균씨가 끼인 자○당이 우리 여학생들을 등산 가자고 초청했을 때는 참 기뻐다. 산을 타는 것이어서 처음으로 바지를 입고 나서서 속스러웠으나 곧 야외에서 밥을 지어먹으며 명숙이와 나는 처음으로 자○당(아직도 ○이 무엇인지 모른다)의 일곱학생들과 자유로이 대화했다.

즐거웠던 속리산 법주사 수학여행

본과 3학년 때 속리산 법주사 여행 (그때는 여자 셋이었다), 4학년 때는 명숙이와 나 둘이 가야산-해

인사 여행에 가서 야외에서 여러 남학생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들 옆에 대의원인 박승균씨, 그리고 그 때는 몰랐지만 우리 한수웅씨가 있는 것을 요새야 알았다 (그것도 우리 딸들이 얘기해 줬서). 그러나 요즈음 미국에서 class reunion때 자주 만나 이제 다 친구가 되어 버린 우리 classmate 부인들 중에서 자기 남편이 꼭 여학생 옆에서 사진 찍어서 돌려 주곤 했다해서 보니, 여러 남학생들이 사진에서 마다 여가져기 끼어 있었다. 특히 가야산-해인사 여행 때는 명숙이가 몸이 불편해서 중도에서 대의원이 부탁해서 신광희씨가 명숙이를 escort해서 되돌아가게 되어 그야말로 여학생으로 나 혼자서 가야산 꼭대기까지 등산해야 했다. 거의 다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공알 만세"소리가 울렸다. 먼저 올라간 학생들이 나를 환영하는 제스처였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잠시 당황했지만 기쁘게 그들의 환영을 받기로 했고 그렇게 cheer up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다. 그때 여러 학생들과 사진들 많이 찍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직도 그 산봉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밑으로 전개된 대자연 내려다보면서, 나 여학생 혼자 여러 남학생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던 일이 눈에 선하다.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때였던가. 늘 한 group에서 실험했던 암전환, 부산에서 왔던 이경용씨가 그 여름에 뇌염으로 타격을 했다 해서 쇼크를 받았던 것이 지금도 아프게 느껴진다. 그 젊은 나이, 그 힘든 쿠퍼타시름 다 겪고 나서 그렇게 아깝게 가다니... 젊은 우리에게도 죽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것이다.

본과 4학년 때 일어났던 4.19때 우리 학급이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도 의대생으로 나가자고 열변을 토하던 모습들을 참 장하게, 자랑스러이 보았다. Gown을 걸친 우리 classmate들이 경무대 쪽으로

달려가는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장한 한국의 사나이들이구나 했다. 특히 총탄을 맞은 다리를 cast하고 교실에 나타났던 이희백씨는 그 당시의 영웅이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한 때였다.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 달이 제 1외과 병동이었다. 마침 제일 키가 컸던 이재승씨와 팀이 되었다. 나는 늘 키가 큰 남자에게는 야코가 죽곤 했다. 특히 회진 돌 때 그 옆에서 서면 내가 더 줄어드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한 달간을 수술장 조수 노릇, 환자 입원, 회진 준비 등으로 헛내기 인턴으로 참 고단했으나, 이재승씨는 늘 여유있게 자기 일 다 끝내고 어느 때는 막 들이 닥치는 내 입원 환자까지 도와주곤 하여 참 고마웠다. 학교시절 때 우리 여학생들에게 별로 친절을 보여주지 않던 우리 classmate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 우리를 생각해 준 분들이었구나 느꼈다.

이같이 새로 깨달은 우정은, 후에 소화가 내과를 돌 때 같이 인턴 하였던 남상익씨의 배려있는 모습에서도 많이 느끼곤 했다.

그 당시 우리 고단하고 빈털터리 인턴들의 모습을 재치있게 그린, 이재두씨의 "인턴생활"이라는 글이 서울대학 신문에 게재되어 몇 번을 동감하면서 읽었는지 모른다.

도미하고 임상수련을 다 받고 그 후부터 이곳에서 "61 class reunion"이 시작됐다("74년이었던가?). 젊고 갓 결혼했을 때는 우리 classmate들의 부인들은 대부분이 다 내동생 나이 짝이어서 자기네들도 나를 어려워하고, 나도 좀 어색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자주 만나고 자식을 낳고 나니 공통 화제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비슷이 늘어 가는 판이라 이제는 다 친구가 되어 버렸다. 매년 여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특히 남편들의 학생시절의 모습들을 얘기해드리면 아주 재미있어 들 한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해

드린다.

뭐니뭐니 해도 동기생들끼리의 모임이 제일 좋다. 이제는 서로 편히 대화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얼마 전 명숙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자기는 다시 의과대학을 간다면 여자대학을 가겠다고, 우리 대학생활은 너무 외로웠다고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나도 classmate 아닌 외부 사람과 결혼했으면 동창회나 class reunion에 잘 안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학시의 어색한 상태로 헤어진 그 모습의 기억만 남아 있으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명숙이가 가엽게 느껴졌다. Class reunion에 자주 가자고 했다. 그러면 다시 우의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기는 명숙이도 참 흐뭇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몇 년 전 참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한국에 있는 classmate들이 명숙이를 위해 그리 많이 모였더라고.

6년 동인의 চে증이 좀 내려갔을 것이라 믿는다. 나도 자주 귀국하곤 했는데 우리 급우들 수 십명이 열심히 그 바쁜 시간 중에도 모여 주시는 데는 감사를 금할 길이 없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떠오르는 144명 급우들의 그리운 얼굴

아직도 144명의 우리 classmate 중 어느 누구의 이름을 대도, 학생 때 말 한 번 안 해본 남학생이라도 얼굴이 생각난다. 사실이지 한참 젊고 자랄 때 6년을 같이 지냈으니 우리 classmate들 서로가 보통 인연은 아닌 것이다.

1976년 도미한 지 13년만에 처음 귀국했을 때 이갑순씨가 부인과 함께 차를 몰고와서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달렸다. 도착한 곳은 조일균씨 댁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동기생들이 모두 부부동반해 와 모여 있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모두들 "수웅이는 왜 안 왔나?"고 아쉬워했다. 그때 졸업한 후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다. 이갑순씨는 후에 그때

찍은 기념사진까지 보내 주셔서 지금도 귀히 앨범에 모셔 놓았다.

작년 시카고학회를 갔을 때 명숙이는 손수 성찬을 지어서 그곳 사는 동기 부부들을 칭해 주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여름(8월) reunion때 Dallas에서 자주 오시는 정철용씨 부부를 만났을 때 우연히 10월 초에 Dallas에 하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강의 준비로 정신없이 갔다가 이미 비행기로 돌아오고 있는데 '온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고 Texas에서 우리 집 Philadelphia로 일부러 전화까지 하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배려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예과 때 내 우비를 칠판 위에 높이 얹어 놓고 가 버려 나 혼자 내려올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급사를 불러서 우비를 내려오게 고생시켰던 그때의 그 광경(?)정철용씨가 이런 친구이시니 감격이 어떨겠는가? Class reunion 때는, 미국에 사는 classmates(60여명)의 반 이상이 모여 와서 골프를 치며 우의를 키운다. 6년간의 재학시절에 사귀지 못했던 동기들을 classmate와 결혼한 덕분에 이렇게 더 가깝게 또 그 부인님들 하고까지 우정을 나누니 다 남편의 혜택이고 내 행운이기도 하리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깊어지는 우리 동기들과의 우의는 이미 만년기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에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

골프를 치기 위한 듯한 class reunion 이기는 하나 골프채도 들 어보지 못한 처지에서도 꼬박꼬박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없는 날까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는 동기들과의 우정을 만끽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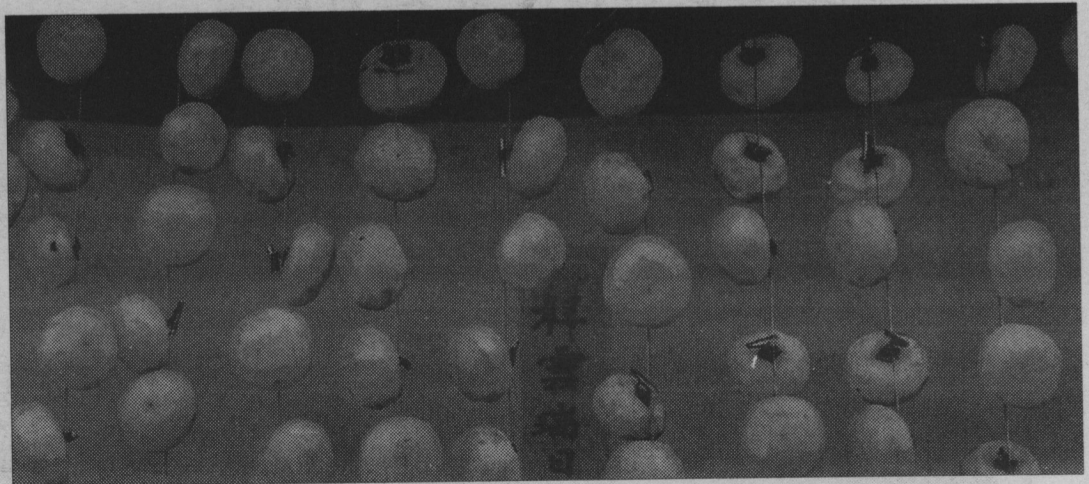
졸업 후 40년의 재회 때는 모두 한국 모교에 모여서 61년 동기가 된 우리들의 인연과 우의를 마음껏 즐기며 또 45년의 만남을 약속할 것이다.

<필자에게 편집자가 간청하여 필라춘추 2001년, PP.40-46으로 부터 전재하였음.>

옛 캠퍼스의 추억담을 기다립니다

한해원동문의 글처럼 재학시절의 추억담을 보내주십시오. 특히 지금은 없어진 옛 캠퍼스들의 생생한 추억담은 국내외의 여러 동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관악캠퍼스에 재학중인 후배들에게도 좋은 읽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고 사진속의 인물설명도 곁들여 주십시오.



고향 처마밑에 늦가을이면 조롱조롱 달리던 꽃감들.

미시간 호수! (The Lake Michigan)

주성은 <1909-2001>

망망한 대해와 같은 미시간 호수...
파도소리와 함께 물결이 출렁출렁...
끝없이 넓고 파아란 창공! 호수!
광활한 하늘과 맞닿은 멀리 수평선 위로
돛단배가 떠다니고
물위로 나는 갈매기 떼는 태양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반짝...
그것은 마치 東으로 西으로 각양각색의
인생들을 싣고 날아가는 은익(비행기)같이
보인다.

붉은 태양은 물결에 반사되어 영롱한 Diamond Ray를 퍼놓은 듯... 물위에서 넘실 넘실 물결과 함께 미끄러져 나가고...
하얀 달빛은 끝없이 넓은 호수에 수평선과 이마를 맞대고
맑은 물결에 고요히 반사되고 있다.
광활한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너머로 하얀 물거품과 함께 우물쭈물 철석 올랐다가 내려치는 파도소리는,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휘날레와도 같이 들려온다.
시시각각으로 작고 크게 변하는 물결은 나의 매미론 마음 발을 적시어서 항상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 넓은 우주에 모든 삼라만상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양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미술품인 것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라는 찬송이 절로 나온다.

나는 불란서의 음악가 Claude Debussy 작곡인 교향곡, "바다"(La Mer)를 연상한다.

"파도소리만 들리는 킁킁한 새벽바다
점점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환-히 트여오는 동녘하늘-그 자태를 들어
내는 수평선,
자색하늘은 이윽고 푸른 모습을 나타내고

바다로 본래의 아름다운 푸르름을 드러내어,
싱그러운 아침이 열리고,
태양은 그 빛을 넓혀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향시인가!!
과연 바다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육체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호수에서 들려오는 good harmony의 음악적인 파도소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해준다.

The Lake Michigan은, Canada에서 흘러 내려오는 The Lake Superior물과 합쳐서 또 아래로 흘러, The Lake Huron과 The Lake Erie로 흘러서 4대 호수 물이 합하여서 그 장엄한 Niagara폭포수를 형성하여 영원무궁토록 평평 쏟아져 내릴 것이다. 나는 또 한번 하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를 불러본다.

나는 매일 아침 호숫가로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품격, 전능과 사랑을 몸소 확신하며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맑고 깨끗한 호수물결처럼 나의 마음에도 순수한 감사의 물결이 넘쳐흐르게 된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나는 시원하고 짙은 one piece를 입고 맨발에 sandal을 신고 호숫가로 나간다. 서늘한 나무그늘 아래 있는 bench에 앉아서 호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panorama를 감상하면서 내 나이를 잠깐 잊어버리고 청춘으로 돌아간다.

백사장에서는 beach towel을 깔고 sun tan을 하기 위해서 쪽쪽-뻘은 끈은 다리를 죽-펴고 누어있는 미녀들은, 마치 덴마크의 명물 "인어상"(Little Mermaid)과도 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물위에서는 오색이 영롱한 무지개 색깔의 돛단배를 타고 있는 젊은 청춘들이 쌍쌍이 타고 유유히 sailing을 하며 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그리고 씩씩한 Teen들은 만경창과를 좌우



生存時의 필자.

로 헤치며 water ski를 타고 뽀뽀 물위로 달리고 있다.

나는 water skiing을 직접 보면서 파도를 타는 젊은이들의 씩씩한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자연을 내 것으로 만들고 즐기는 슬기를 엿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땅을 인간들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윽고 호수에 저녁노을이 드리우면 석양이 서편하늘에 기우러 갈 때, 무르익은 붉은 태양은 호수에 붉게 반사되어 물위에 둥둥 떠돌며 번진다.

호수에 어둠이 짙어질 때면 하늘에 밝은 달은 구름사이로 살며시 얼굴을 내밀며 호수에 밀물과 썰물을 조종한다. 그리고 놀라운 달의 인력은 만월 때 최대로 작용하는데, 그때 육지는 약 6인치가 들리워지고 대기는 수마일 상공까지 부풀어오른다고 한다.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또 한번 찬양을 드린다.

나의 마지막 나그네 장막을 Lake Front에 있는, 낭만이 흐르는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동쪽 제 7천국(7층)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호수로부터 들려오는 음악(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게 나의 여생을 보내고 있다.

맑고 파-란 호수물!
부드럽고 겸손하게
모가 나지않고 낮은 곳으로만
흘러서 흘러서 내려가는

물, 물, 물이 되고저...
잔잔히 나의 마음문으로
스며들게 하여다오.

그리고 나의 영혼
고요히 잠 잘 때

잔잔한 파도소리로
찰찰찰사 리듬에 맞추어서
하늘의 자장가를 불러다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 편집자 추가: 작가 주성은 여사는 故 정보라 박사 <치대 32년 졸>의 부인이시며, 정동빈 동문<치대 55년 졸>의 모친이신 바, 지난달에 별세하셨으며, 이 시는 저자가 83세이던 해에 생전에 다니시던 시카고의 참길 장로교회<Deerfield, IL>에서 발간된 참길지 1권 4호 (1992년 8월)에 게재되었던 것임. 전재를 가능하게 하신 참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원고 투고요령과 편집원칙

<투고 요령>

- ◇주제 및 내용: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시사문제 평론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게재기사나 글에 대한 독자의 평가 및 의견
- 각종 자료원이나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 ◇원고 길이: 제한 없음
- ◇투고요령(편집 편의 우선 순위)
- ▶e-mail with attachment(한글 또는 외국어) e-mail 주소 : ynlee@htrdlt.com
- ▶fax : 원고 (육필원고 혹은 타자된 원고) 및 편집자료 제안물(사진, 글, 독자의견)

fax) 847-981-1465

▶우송 : SNJAAUS

790 Busse R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편집자 직통전화 : (847)981-1464

◇원고마감일: 제한 없음(월간지임으로 다음달에 게재될 원고의 마감 일은 매월 25일임).

<편집원칙>

- ◇편집자는 저자와 함께 상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용하여 발전시키고 참신한 용어 개발하여, 이를 고양하는 일이 되고자 합니다. (초고는 자유롭게 집필하십시오.)
- ◇모든 원고는 기명기사로 하고, 저자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 ◇편집에 있어 편집자는 투고된 초고를 존중하여, 게재 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수준 높은 내용을 만들고자 하고, 그 관권은 저자의 소유임을 명시합니다.
- ◇편집위원회는 동문들과 그 가족들께서 분주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 투고하신 귀중한 글과 특정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글로써 文筆과 論考의 場을 재미동창회보의 속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꼭 사진도 보내주세요(사진속의 이름 설명과 함께).

어머님전 상서 (1994)

白基玩 <1933 -민주통일운동가·통일문제연구소장>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지요. 남들은 저 밝은 달이 그리 반갑다지만 이 못난 불효놈에겐 저 밝은 달이 한점 먹물갓기만 합니다. 한 해가 또 같으니 아. 아흔여섯이 되셨을 우리 어머니. 그래서 지난 한가위엔 소식이나 알리고자 이지면에 글을 올렸었으나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가요. 오늘도 달은 떴으나 제 앞엔 아흔여섯이 되셨을 어머니보다 더 캄캄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마땅히(결코) 탄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어머니를 업고 그 바람찬 구월산 꼭대기까지 뛰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 손으로 손수 밥을 지어 올리자는 겁니다. 구수한 팥밥에다 그 시름살큰 호박김치찌개로 초죽상(통나무로 만든 둥그런 상)이나마 한 상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 이불을 한번 깔아드리자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

움에 절은 어머니 포대기 옆에 누우면 아, 어머니 저는 거기서 울고 또 울다가 다시는 못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쯤 그래 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역사나던 일제 말엽이 떠오르시나요. 끼니가 어려운 집안에서 콩엿을 해내라고 밥새 양양 울면, 아! 기완아, 제 배지만 부르고 제등만 따스자고 하면 키가 안 크다고 하셨지요. 그래 무서워 쭈그리고 숨을 죽이면 들려주시던 그 우람한 장산꽃매 이야기. 약한 것은 마땅히 손을 안 대고 남을 괴롭히는 악탈자 침략자만 박살내는 먹치기(목숨을 건 승부)의 장수장산꽃매, 그 먹치기를 떠나기 전날 밤 딱딱 제 동지를 부수는 부리질이야기는 우리집안의 어두움을 가르는 듯했지요.

어머니, 이참에 그것을 책 두권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

머니한테 되돌려 주고자 하지만 그런 길마저 없습니다. 예라 모르겠다 무품선으로라도 띄워 보낼까 하다가, 대학에서 문학강의를 하는 딸 원담이한테 말했습니다. 강의따위는 때려치우고 이 예비와 네 할머니가 끝내는 살아서 만나는 소설을 하나 쓰라고. 강물은 아무림 바다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이 보여야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제 인격도 명예도 한 살메(일생)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다만 그리움의 포로가 되는 듯합니다.

또 한권 우리를 가르 외간 것들을 떠올리면 짐승같은 노여움이 솟구치곤 합니다. 이 점에선 아버지가 더 하셨지요. 눈보라치는 명우리 고개에서 밤이 사람을 물어 가던 날, 남들은 일쫓도 못하는 데 돌찌기(돌맹이의 황해도 방언) 돌만 들고 밤을 잡으로 홀로가시

던 아버지가 생각나시나요.

지난 81년 한가위 무렵입니다. 파출소에서 白 할아버지를 모셔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 가보았더니 걸지도 잘 못하시는 아버지가 순경을 붙들고, “너희들이 내 아들 기완이를 때려 병신을 만들었다. 그 원수를 갚으러 왔노라” 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그 대륙적 사나이 우리 아버지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며 ‘기완아 나는 지금 눈을 감는게 아니구나. 네 어머니를 만나러 긴 여행을 떠나는 거다’ 라고 하시더니 그것이 10년전이니, 이제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곁으로 가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우리들의 통일은 그 파눈물을 세우는 겁니다. 일제의 뺨대기로 자못 허기지던 그 식민지의 밤, 기완아 조금만 참거라 왜놈들만 물리치면 그 까짓거 조차떡(조로 만든 떡) 뿐이겠는나 소를 잡고 날라리 불고 은을탈춤으로 살을 푸는 건 우리들의 짓이라고 하시던 그 살풀이를 오늘에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통일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어머니를 떠 올리면 한 줌 눈물이 되어버리는 이 마음.

어머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장산꽃매 이야기속엔 만짜날이라고 있었지요. 삼백년을 서로 그리기만 하다가 만나기만 하면 짝궁이 된다는 시월 아흐렛날 말입니다. 아, 우리들에겐 그 옛이야기의 신화마저 한낱 꿈인가요. 어머니, 이 불효놈 이 기완이는 이렇게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 무덤도 다시는 못될 것만 같고 그러나 열추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바로 돌아오는 시월 아흐레 만짜날 저는 저 한라산에서부터 어머니를 찾아 걸으려고 합니다. 하늘을 지붕 삼은들 어떻게 더없이 따스할 것이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덧없는 나그네라고 사립을 잠근들 어떻게겠습니까. 빛을 찾아가는 사람은 허리를 졸라매고 또 매다가 꼬부라진들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셨으니.

어머니 제가 찾아가갈 때까지 어머니! 그저 살아만 계십시오. 저도 한번쯤 어머니를 업고 냇다 뛰고 싶습니다. “야! 이 백땅(백정의 황해도 방언)놈의 세월아, 나도 난도 한번쯤 효도를 한다. 이 백땅놈의 세월아”

효자상(孝子像)

박경민 동문(의대 59년 졸)의 부모님 뉘를 당하여
윤상래(66년 수의대 66졸)



한해 두번의 부모님상을 치루신 박경민(의대 53입) 동문

아아보니 효자봉 서서보니 시루봉 효자는 어디 가고 비각만 남았는가? 지나는 발걸음이 부끄러워 늦는구나

내가 자란 고을은 충청도에서도 가장 산수가 수려하다는 송암리(松岩里)인데, 그 이름처럼 소나무가 많고, 기암절벽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 년 전 모친상을 치루려고 귀국을 하였을 때였는데, 풀잎 없이 물러오는 문상객을 대하다가 뜰해지는 틈을 타서 담장 너머를 보니, 저 멀리 ‘시루봉’이라는 산봉우리가 보였다. 일설에 의하면... “언젠가 한 효자가 늙으신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하루는 모친께서 중병이 들어 연방 신음을 하시는 것이었다. 아무리 약을 지어다가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낫지 않으셨는데, 모친께서는 연방 하시는 신음 중에서, “야야, 내가 연한 생 고사리 국을 먹으면 병이 싸나올 듯 하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때는 엄동설한 이었고, 눈이 석자는 쌓여있는데 어딜 가서 연

한 생 고사리를 구하여 온단 말인가? 지금 같으면 겨울철에도 냉동이 된 생 고사리를 구할 수 있으나,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던 그 옛날이야 웬걸 가능한 일이었을까?! 종일을 고심하던 끝에 효자는 밤새껏 마련해서 갖 쪼은 뜨끈뜨끈하게 김이 나는 시루떡을 지고서 산봉우리에 올라갔다. 그 때시루를 봉우리 위에다 놓고서 천지신명, 산신령에게 간절하게 ‘생 고사리를 얻게 해 달라’고 밤낮 삼일을 기도하였는데 삼일 후에 때시루를 들고 올라보니, 신기하게도 그 밑에서 싱싱한 고사리가 자라고 있었다. 그 고사리를 꺾어다가 맛있는 국을 끓여서 모친께 드렸더니, 모친님의 병이 그 이틀날에는 말짱이 나으셨다는 지나오는 전설이 있다. 후에 사람들이 그 효자의 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정자(비각, 효자비)를 효자가 살았다던 동리에 세웠고, 그 동리를 ‘효자가 살던 고을’이라 하여 효촌(孝村)이라 하였다. 효촌은 내가 살던 송암리의 이웃동리이다. 그 시루 봉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전설을 생각하고, 일

찌기 고향을 떠났던 까닭에 자식들을 기르시느라고 고생만 하셨던 홀 어머니를 모셔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불효(不孝)를 통절하게 느끼게 되어서 더욱 부끄럽고 원통한 생각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었다. 모친상을 치루고서 다시 渡美하는 날에는 효촌리를 지나서 가게 되었다. 효촌리 동구밖에 서있는 그 정자(효자비)를 보게되니, 가슴은 또 메여지고 참을 수 없는 오열에 저절로 시가 한 수 나오게 되었다. 효자는 어디 가고, 비각만 남았는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이제 생김지가 다섯 해 밖에 안 된다. 역대의 임원, 이사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여온 결과로 재미 동창회의 지부동창회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동창회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전 회장님이신 박경민(의대 53입·위의 사진) 선배님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리라고 본다. 한번은 가지고 계신 동문 주소록을 보니, 하도 많이 뒤적거리신 까닭에 페이지마다 모두 헤어져서 글씨가 안보일 정도로 희미하게 보이였다.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동창회 일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그저 여겼는데, 선배님의 일상생활이 매사가 그렇게 정성이 지극하시다. 지난 2월 초순경에는 선배님의 모친께서 오랜 동안 병고에 시달리다가 92세의 연세로 돌아가시었다. 노환으로 장기간을 입원하여 계시는 동안 선배님께서 바쁘신 업무(마취과 의사)가 끝나는 대로 불철주야 모친님의 병고를 간호하시고, 위로하여 드리었다. 하루는 선배님의 동향이시며 중 고등학교는 물론 의과대학 후배가 되시는 김은란(의대 60입) 동문이 선배님의 모친 병문안을 하였다. 모친님께서 그 병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벌써 육십이 넘으신 아드님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자신의 병간호 때문에 번번히 식사도 거스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라’고, 김은란 동문에게 간구 하시는 것이

었다. 식당에 가셔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선배님께서 모친님의 병세가 걱정이 되어서 나온 음식을 한 수저도 채 드시기 전에 다시 일어서서 병실로 향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그 모친님께 그 아드님이라 할 수 있다. 장례식 때에는 선배님께서 어찌나 서럽게 하시든지, 모든 조객이 그저 함께 눈물을 떨구었다. 선배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었다. 그런데 쉬어보시기는커녕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부친님께서 병석에 누우시는 것이었다. 워낙 노환이시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는 고로, “Stomach Tube”로 연명은 하시는데 연하작용의 이상으로 “Aspiration Pneumonia”가 자주 온다. 그것을 간호하시고, 또 방지하여 보시려고 하루에 세 때를 병문안 가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또 저녁에도 가셔서 부친님의 뒷바라지를 하여드리는 까닭에, 은퇴전보다도 더 바쁘시고 심신이 고단하시게 지내신다. 인정이 메마르고 부모를 위한 자식의 정이 너무나 각박한 지금의 이 세상에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고향에서 잃은 효자를 나온 이곳 ‘뉴잉글랜드’에서 찾게 되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서도, 한편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장례식을 도우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頂上會談이후의 南北關係

고병철 <법대 59졸 · 일리노이대 시카고캠퍼스 정치학과 교수>

작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탈냉전시대에 냉전이 계속되던 한반도에 세 번째의 解氷을 가져왔다.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시작된 첫 번째 해빙과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채택으로 개막된 두 번째 해빙이 각각 1년을 넘지 못한 전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번 해빙은 좀더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1972년과 1991년과는 달리 2000년에는 남북정상이 분단이후 처음 상봉하고 회담하였다는 큰 차이점이 있었으므로 역사적인 사변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같다.

정상회담 1주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해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남북관계는 적대와 대립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했는가? 당국자(정부)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상회담 1주년을 3개월 앞두고 중단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관계가 속되고 있다. 9월 15일에 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니 해빙은 아직도 진행중인 셈이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담직후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자. 그 다음 남북관계가 왜 반년 간이나 교착상태에 진입했는지, 다시 말하면 금년 2월에 출범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전망을 조망해 보자.

정상회담의 의의

지난해 6월 중순에 실현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봉과 회담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와 정부가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양쪽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남북정상은 또한 남북간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협상은 군사동맹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북회담의 취재풀(press pool)에서 외국인 기자를 철저히 제외하는 배타적 자세를 취했다.

두 정상이 직접 협상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

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들은 12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그중 4시간 15분을 협상에 썼다. 보통 정상회담이 1시간,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관례를 감안하면 이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언어가 다른 정상간에는 통역이 필요함으로 사실상의 회담시간은 30분내지 1시간인 셈인데 남북정상은 그것의 4배내지 8배를 협상하였다는 뜻이다.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최고 정책 결정자들끼리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상대방의 현실인식과 사고방식 및 정책 우선 순위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합의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 합의는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문서화되었으니 그 내용이 무엇이고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적

남북선언은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서명한 최초의 합의문이다. 쌍방의 공식명칭—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도 두 나라의 공식명칭이 나왔다. 그러나 이 두 합의문은 정상이 아닌 총리가 서명한 것이었다. 이것은 공동선언이 비록 내용면에서는 기본합의서처럼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중은 과거 어느 합의문보다도 크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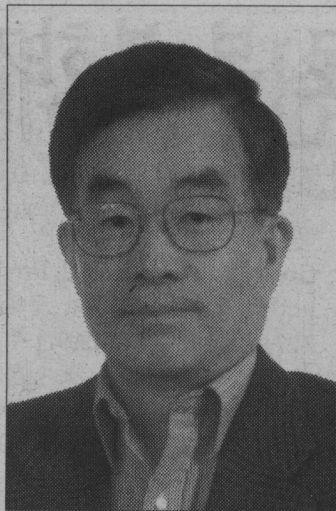
공동선언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 중 첫 번째인 자주원칙과 같아서 문제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주원칙을 주한미군의 철수와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군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묵시적인 양해를 얻어냈다고 주장하여 자주와 미군철수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공동선언은 남북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1980년 10월에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방안”을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1991년 1월에 수정한 것을 말하는데 남북에 있는 “지역정부”에게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부여하고 집권적으로 연방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89년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 이전에 과도기적 잠정적 기구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연합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도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공동선언의 제3항은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된 항목이다. 제4항은 협력과 교류를 다루고 있는데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5항은 남북이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하여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상기한 여섯 개의 합의사항중 어느 정도 실천이 된 것은 세 가지(3, 4, 5항)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북에 가기를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송환하였고, 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도 15년만에 재개되어 남북 각각 100명씩 세 번이나 교환하였다. 장관급 회담이 네 번 개최되었고 별도로 국방장관 회의까지 열렸다. 경제협력은 북한이 기대했던 규모의 남한의 대북 투자와 원조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위탁가공 무역은 적어도 금년 초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적교류도 활성화되었다. 남북사이에 민간항공기가 여러 번 왕래한 것과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이 공동 입



장한 것은 남북화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통일방안의 논의는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합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킴으로서 백지화되었는지도 모른다.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남북관계 전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남북관계 발전에 예기치 못한 큰 장애물을 구축한 것도 김대통령이었다. 3월 7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김대중정부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외교적 실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김대통령은 부시행정부로부터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대북 포용정책의 지지, 북미 기본합의서의 유효성 확인을 받아내려는 목표를 형식적으로는 달성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는 북한에 대한 회의(skepticism)를 표명하고 북한처럼 투명성이 없는 나라와 합의를 해도 북한이 과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힘든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 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다시 말하면 노벨평화상으로 인정받은 DJ의 업적을 간접적으로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DJ가 방미를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적어도 연기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부시의 강경 노선에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으나 남한과의 관계를 소강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김대중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북한은 제4차 장관급 회담을 위시해서 모든 정부간의 교류를 동결시켰다. 그뿐 아니라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부시행정부의 북한 “압살”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주한미군철수의 요구는 DJ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의 하나로 언급했던 김정일의 한반도 미군주둔 필요성 약해설을 약화내지 못하게 했다. 북한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선전과 진의를 구분해야 하지만 선전이 그 빈도와 강도를 높이면 정책이 되는 경우도 많다.

부시행정부는 4개월간의 대북한정책 검토를 거쳐서 6월 6일에 북한과 대화할 의도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과 협의할 의제로 (1)북한의 핵활동에 관련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의 이행 개선(improved implementation), (2)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금지, (3)북한의 재래식 군비태세(conventional military posture)의 위협감소를 제시함으로써 대화가 쉽게 재개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사실 예비접촉만 1주일 후에 뉴욕에서 가졌을 뿐 본격적인 대화재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재래식 군비태세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려는 저의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선결조건으로 미군이 남한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대화의 의제로 경수로 제공이 지체되어 북한이 심각한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이 보상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양쪽은 완전히 평행선을 가고 있으며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확률이 크다.

7월 24일과 25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안보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외무장관회의에서 남북 및 북미간에 외무장관 접촉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북한은 백남순 외상대신 허종 순회대사를 하노이에 보냄으로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뿐 아니라 남한과도 정부차원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9월 2일 북한은 당국자간의 회담을 남한에 제의하였고 남한이 이것을 수락하고 장관급 회담을 9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남한에서 햇볕정책의 전도사이며 대북 정책을 김대중정권의 초창기부터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직전에 대화재개 제안이 입장관 앞으로 왔다는 것은 북한이 입장관의 유임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과 푸틴(Puti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장쩌민(江澤民) 중국주석의 방북도 북한의 대남정책 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

<12면에 계속>

경제통제로 본 북한경제의 실상

전 방 남 <Ph. D. 상대 77년졸, Drexel 대학 경제학교수>

최근 미국 테러 참사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 (9월 16일-18일)이 열려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과 왕래 지원, 제4차 이산 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조치 등에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되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하며, 개성 공단을 건설하고,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협의하며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작년 6월 평양에서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고, 전 경련이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며, 북한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는 등 예전 같지 않은 북한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우선, 경제적으로 다급한 북한의 모습을 본다.

지난 5년간 북한 땅을 휩쓴 기아와 경제적 피해가 유례없이 폐쇄적이고 외부와 절연된 모습의 북한경제체제의 문 빛장을 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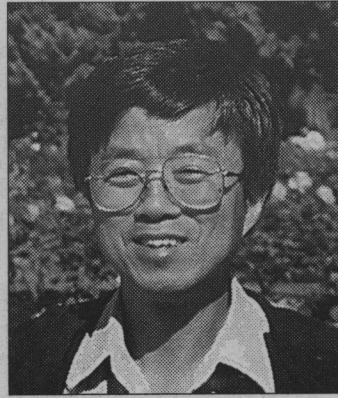
북한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자료와 Internet Search 등을 통하여 몇 가지 경제통계들을 모아 보았다. 경제통계는 신빙성,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통계는 우선 기본자료부터가 부족하고 측정기준 및 그 정의가 불투명하며 관련국제기구 등 제삼자로부터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경제학자나 각 연구기관이 나름대로 추정치나 환산통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일러둔다.

먼저, CIA 추계로 2000년 7월 현재 2,169만의 북한은 남한인구 4,747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데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GDP,

북한이 사용하는 GVSP, 즉 Gross Value of Social Product를 GDP로 환산하여 구매력 지수로 조정한 것)이 1999년 추계로 226억달러로 같은 해 남한의 6,257억달러의 3.6%로 대략 1/28에 해당한다. 북한의 1990년 GDP가 264억달러였다는 한 연구의 추정치를 인용하면 매년 2-4%의 북한 inflation을 감안하여 볼 때 8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거의 1/2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년 전인 1965년 당시만 해도 경제규모가 30억달러로 남북한이 비슷했는데 이와 같이 1:27의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지난 35년간 남한이 연평균 8-9%의 실질 경제 성장율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1984년 이후 2-3%의 저성장을 하다가 냉전종식이 된 1991년 이후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에 기인한다.

미 상무성 추계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율은 -5%이었고 1999년에는 1%에 그쳤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지표로 사용되는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DP)은 1999년 중에 \$1,000(구매력 지수로 조정된 것)로 같은 기간 남한의 \$13,300의 약 1/13에 불과한 것으로 CIA는 추계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달러 공정환율로 환산하면 1983년까지 일인당 소득 2,000달러 수준으로 북한이 남한을 계속 앞섰다가 1984년 이후 점차 뒤지기 시작하였고, 무역환율 수준으로는 일인당 소득이 년 750달러로 1975년까지 북한이 앞서다가 1976년 이후 남한에 비하여 뒤지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CIA 자료에 의하면 북한돈의 대미달러 공정환율은 1994년 5월 현재 2.15(\$1 = Won2.15)로 1980년말 이후 계속하여 큰 변동이 없었는데 암시장 환율은 공정환율의 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200:1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의 1인당 연소득 1,000달러는 1,100달러 수준인 앵글라데쉬, 우간다, 네팔 등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세계은행 통계에 비추어 볼 때 120개국 중 110번째 정도에 해당하고, 남한은 세계 24위에 rank되어 있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총 GDP중 42% 차지), 농업(30%), 그리고 서비스업(28%) 등으로 되어 있고 총 노동인구중 36%가 농업 인구로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수출이 6억 8,000만달러 (1998년 추계)로 남한의 1,440억달러의 0.5%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GDP의 7% 수준으로 남한의 42%에 비해 극히 낮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야금, 농산물, 어물 등 1차 상품이 주종이며 수입은 1998년중 9억 5,400만달러로 무역적자가 상대적으로 커 대외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1995년의 경우 북한의 수출 대상국이 일본(28%), 남한(21%), 중국(5%) 순으로 되어있어 한국이 두 번째 주요 수출국이다.

수입은 한국이 북한 총수입의 4%로 중국, 일본, 러시아 다음의 순으로 되어 있다. 남북한간의 직접 무역은 1990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무성 통계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상품무역량은 1999년에 2억달러 규모로 1998년에 비해

30%나 증가하였다. 투자유입에 있어서는 현대그룹이 지난 2년여 동안 금강산 관광 project에 관련하여 2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북한의 대외부채는 1996년 현재 120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다 빚갚는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16년이 걸리는 셈이 된다.

이자를 평균 국제금리 5%로 가정하고 대외 채무부담을 (Debt Service Ratio)을 계산해 보면 80%가 넘어 일반적인 국가 파산의 한계점을 이미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980년초에 채무변제불능 선언을 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채무부담율은 50-55% 정도였다. 1990년초부터 선봉, 나진 지역을 자유수출지역으로 선정하여 외화획득을 꾀한다든지, 최근 일본과의 북경회담에서 40억달러 상당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요구하는 것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은 전화, 통신,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특히 취약한데, 예를 들어 북한의 총 주요도로 길이가 31,200km인데 포장도로가 2,000km 미만으로 포장 비율이 6.4% (남한은 74.5%)에 지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방력과 국방비 지출인데 세계 4위 (미국무성 평가)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은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37억달러 내지 49억달러(1998년 경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국민총생산 (GDP)의 17%-22%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같은 해인 1998년에 99억달러로 GDP 대비 1.7%에 해당한다.

반면, 북한의 식량생산은 1999년의 경우 400만톤을 넘었으나, 그나마 남한으로부터의 비료 지원이 16만톤으로 1만톤 비료가 5만톤 정도의 수확증가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80만톤 정도의 수확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150만톤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최근에 John's Hopkins 대학이 이끄는 한 조사단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5-6년간 대략 300-350만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 북한인구의 거의 15%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이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주요 경제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현실을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냉전 종식, 국제여건의 변화, 경제정책의 실패 및 천재까지 겹쳐 경제가 위기의 정도를 넘어 북한 경제규모는 남한의 1/28, 일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13, 수출은 남한의 1/200에 불과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막대한 대외부채에 허덕이면서도 국민총생산의 거의 1/3에 육박하는 자원을 국방비 지출에 쏟아 부으며, 지난 5년간 전 인구의 15%를 굶어 죽게하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경제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현실에 실로 현격한 격차가 있어서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 비용의 부담이 막대할 것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통일 후 10년간 최고 3조 5,000억달러까지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남한의 1년 GDP가 6,000억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수치상으로는 가까운 장래의 통일 실현성에 하나의 의문점이 남는다. 올해로 광복 56주년, 6.25 발발 51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 늦기 전에 한민족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서로의 실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상호 인정하는 진실한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소개:

▶Drexel 대학 Bennett S. LeBow College of Business, Philadelphia 경제학교수

▶Indiana대 경제학박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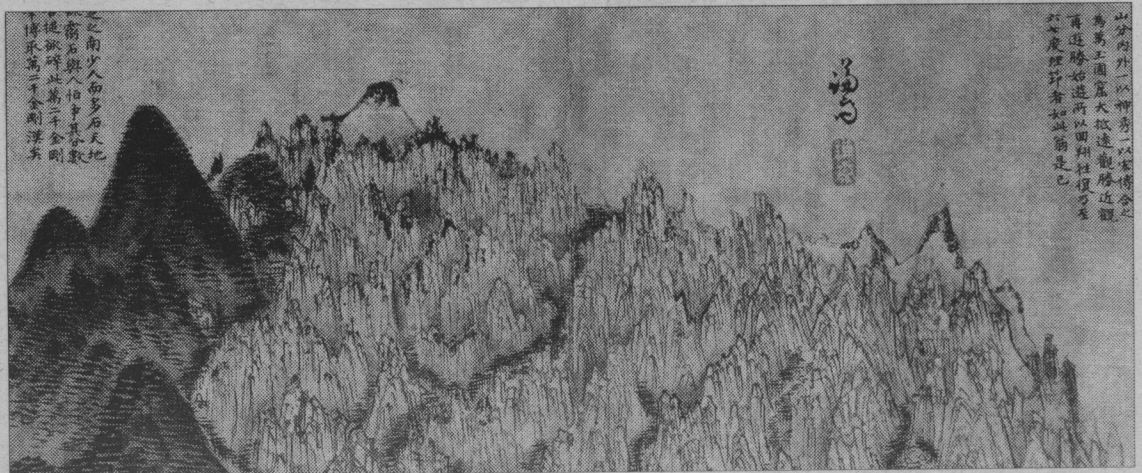
읽고 및 자료 투고요령과 편집원칙

알차고 격조있어 동문들이 매달 기다리며 읽는 회보

◇삶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공과 좌절의 순간과 특별한 경험들을 동문들과 나눕시다.

◇당신의 분야에서 초보적인 사항들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일반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됩니다.

◇쓰고, 생각하며, 동문들과 토론합니다.



정선(鄭澈 1676-1795)의 금강산도. 건본담채 28.1 x 33.7cm(국보 217호)

북한 화폐와 남한 화폐의 교환비율

이대기 <경제학과 91년도 입학, 97년 졸업>

북한 화폐

한국은행 98년 입행, 조사부에서 8개월 근무후, 해외학술연수원으로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에 98년에 와서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국은행 조사부 북한경제팀에 있을 때 알게 된 간단한 상식과, 이원기 조사역님과 함께 한 연구 일부분을 참고하여 쓴 것입니다.



북한은 1947, 1959, 1979, 1992, 4 차례의 화폐개혁을 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고, 이때 교환해주는 돈에도 제한을 두어 돈을 축적했던 이들이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예로서 1992년에는 가구당 399원까지 신권으로 바꾸어 주었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처리했는데 3만원 이상은 아예 교환해 주지도 않았고 예금으로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거금을 갖고 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날렸다. 특히 제일교포나 화교의 피해가 제일 컸다고 한다.

3. 교환비율

북한에서의 쌀 1kg은 70전정도이고 고기 1근은 4원 정도임을 참고로 하고 교환비율을 살펴보자.

북한 호텔환전소에서 바뀌는 무역환율은 1달러당 2원 20전이나 암시장에서는 5-10배를 줘야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의 1달러당 남한 환율과 비교하면 북한 1원과 남한 1원의 교환비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화폐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적정화폐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은 국가의 잠재 생산능력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 통화량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인데 이 또한 추정치의 어려움이 있다.

98년,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은행 북한경제팀에서 북한화폐 교환비율을 산정한적이 있었다.

북한의 통화량에 기초해 남북한의 통화가치를 시산해본 결과 북한 화폐 1원당 남한 화폐 가치는 현금통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2원, 퇴장화폐를 제외한 유통화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5원이 되었다.

이는 대(對)달러 환율로 계산한 남북한 화폐 환율이 북한 돈 1원당 남한돈 515원 정도(98년초 기준)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분석은 동구권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제 통화량 규모를 간접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다시 국가간 경제력에 기초한 적정통화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동유럽 4개국의 자료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출과 현금 통화, 경상국민소득 등의 관계를 그래프분석한 결과 북한의 96년 기준 현금통화는 3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에 남한의 현금통화는 15조4531억원이고 북한의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4.5%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30억원은 남한의 6954억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돈 1원은 남한돈 232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4. 맺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여러면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 또는 돌출하므로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통일이 먼훗날의 일만이 아닌 지금,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좀더 정확한 연구와 정책을 제시해야 할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이는 경제문제가 통일의 여러 과제 중 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 하나이며, 남북한 화폐 교환가치의 결정은 당국이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난해한 경제 통일의 일정부분 완성을 의미하며,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경제통일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역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 생각해 볼 때, 통일이나 완전개방이 될때 북한 1원은 남한의 얼마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질까?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얼마의 비율로 교환해주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화폐통합을 하는냐는 것도 여러 면을 고려하여야 할 간단하지 않은 문제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 화폐의 종류와 달러와의 교환비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화폐의 종류

북한화폐는 크게 두종류로 첫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반화폐-5종의 지폐(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와 5종의 주화(1전, 5전, 10전, 50전, 1원)로 되어 있다. 둘째, 무역은행에서 발행하는 8종의 특수화폐-외화와 바꾼돈표, 외국인이 외화를 북한 내에서 사용할때 바꾸어주는 교환용 화폐-이다. 화폐의 외양으로는 아래 사진들에서 볼수 있듯이, 지폐나 주화 모두 혁명이나 사상을 강조하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 특수화폐인 외화와 바꾼돈표는 푸른돈과 붉은돈으로 나눌수 있는데 푸른돈은 사회주의 국가 돈과 바꾼 것으로 평양상점에서 사용되고, 붉은돈은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의 돈과 바꾼 것으로 백화점 등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어 진다.

2. 북한에도 화폐개혁이 있었을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부의 축적과 세습의 대상은 돈이외의 다른 어떤 유형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장롱속에 돈을 꾸깃꾸깃 보관해 물려주는데 이는 발행된 북한화폐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폐개혁의 주된 이유가 된다.

백두산과 천지연을 오르며

<육당 최남선의 글>에서

우리 민족의 근본이시며

우리문화의 연원(淵源)이시며

우리 역사의 모태(母胎)이시며

우리 생명의 양분(養分)이시며

우리 이상(理想)의 자주(自主)이시며

우리 운명의 효모(酵母)이신

우리 백두 천왕에게 일심으로 귀명(歸命)합니다.

<김일훈, '생활속의 역사탐구' 표지에서 옮김>

통일정책과 해외동포

金奉炫 <55년 법과대학 졸업·변호사>

필자는 과거에 10년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자문이었으며 지난해의 8월 24일에
열리는 제9기 자문위원들의 통일문제 간담
회에 “지도급 초청인사”로 참석을 했다.

그 기회에 한국에서 오신 연사들의 좋은
설명도 듣고 많은 자료와 의견을 얻었다.

국내에 있는 동포에 못지 않게 통일을 염
원하는 것이 해외동포의 심정이라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물론 연사들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교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지마는 해
외에 다녀가면서 교포들의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라고 본다. 해외동포들이 보는 통일문제
에 관한 관점은 국내의 의견들과 다를 수도
있다. 국내 동포들이 보는 시야와 다를 수
도 있는 우리의 인식(Perception)을 참작
하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식과 의견이 반듯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국내사정을 모르고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보는 눈
이 이렇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
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남북간담회에 이
어서 몇 가지 건의말씀을 했다. 한국에서
는 정부에서만 통일의지와 필요성을 강요
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일어나는
통일에 대한 자발적인 운동은 아직도 볼 수

가 없는 것 같다. 통일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특허품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통일은 전 국민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민 각층에서 자발적
으로 통일을 지지하고 준비하는 운동이 일
어나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어떤 여론조사들은 국민의 80%
특히 부녀 층에서 단일한 생활에 만족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회피하는 기운이 있었다
고 한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반듯이 희
생이 동반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통일의지를 촉진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
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밑
에서부터 통일에 관한 국민운동이 전개되
어야 되며 민간인이 스스로 동참하고 추진
하는 태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
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4명이나 있으며,
장관이나 차관을 역임한 분도 수 백 명이나
되며, 이외에도 저명한 은퇴한 정치인, 존
경받는 지도인사가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술선하여 개인의 정치적 야심 없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 운동에 앞장선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정부측 인사의 답변이 한국은



미국하고 달리 민간차원의 운동에 대한 전
통이 전혀 없어서 생각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 인사로나마 최소한
고려하겠다는지 하는 태도조차 조금도 안
보였다. 즉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참작해
보겠다는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
다. 그분 말씀이, “정부에서 그렇게 시켜
도 안 하는데 한국사람이 누가 자진해서 민
간운동을 하겠습니까?”였다. 필자는 생각하
기를, 한국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정
부에서 억지로 시키니까 안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하에서 억눌림을 받아 정부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는 전통이 별로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민간운동으로 나가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88 올림픽 때에도 민간운동과 협력이 크게
효력을 본 전례도 있다. 나중에 회의장 밖
에서 필자는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민간운동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언론을 활

용해서 여론에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더니, 그 분은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정부에서 언론에 어
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것이
었다. 즉 그 건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정부에서 언제부터
언론에 손을 댄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차라리 정부는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을 권
장하고 언론을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참여
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어떤
저명인사를 청와대 오찬에 초대해서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국민운동 위촉장을 수여
하고 정중히 부탁하면서, 언론계에도 이것
을 크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
지 않겠는가?

그러면 위촉된 분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
부심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여론을 봐서라
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정부가 왜 언론을
활용 못합니까? 언제부터...?”. 언론매체
를 활용함은 탄압이나 통제와는 다른 것이
다. 오늘날은 세계화시대이며 또 東西가
하나가 되는 Internet 시대에, 미국의 전
통이 이렇고 한국의 전통이 이래서 일이 안
된다는 단점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는
가? 서울에서 한국 정부를 대변하여 미국
에 올 때, 정부의 입장과 문제만 설명하려
고 할 것이 아니라, 해외교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문의 목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통일자
문”이라는 “간담회”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며, 이는 소위 말하는 일방통행로(one
way street) 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
는 바이다.

진한 감동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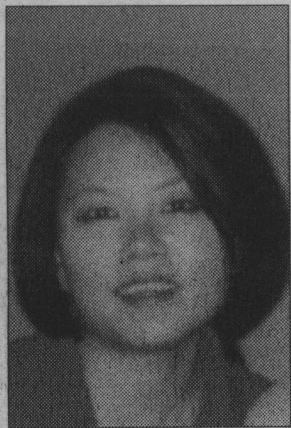
조수미 독창회를 듣고

김수현 <음대 88년 졸>

세계 정상급의 성악가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8월 19일 토요일 시카
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홀에서 독
창회를 가졌다.

이번 독창회는 지난 3월 같은 장
소에서 예정되었다가 갑작스런 건
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연기되
었던 것이어서 더욱 시카고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
다.

조수미씨는 한국에서 선화예고
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
에 재학 중 이태리로 유학, 비오
티, 베로나 등 성악 콩쿠르에 우승
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인 지
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유
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세계 정상
의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 받아왔다.



천부적인 소리와 끊임없는 노력
으로 리리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모든 레퍼토리를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들은 완벽에 가까워
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수미
씨는 자신의 레퍼토리를 계속 확

장하는 부지런하고 의욕적인 성악
가로서 다양한 성악곡들을 솔로
리사이틀을 통해 연주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클래식 성악가로
서 대중음악의 스타일에 근접한
앨범 “Only Love”를 발표함으로
써 더욱 폭넓은 팬들의 지지와 사
랑을 받고 있다.

8월 19일 조수미씨가 시카고 한
인 교포들에게 선사한 노래는 한
국가곡과 이태리 가곡, 아리아등
이다.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오페라 아리아, ‘방금 들린 그 목
소리’ (룻시니의 ‘세빌리아의 이
발사’)에서 조수미씨는 화려한 기
교를 마음껏 발휘하여 청중을 사
로 잡았으며, 후반부의 마지막
곡, ‘아 그대인가 언제나 자유롭게’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서는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아리
아에 담겨진 서정적이면서도 드라
마틱한 성격을 종합하여 표출해
냄으로써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
다.

이밖에 번스타인의 ‘Dream
with me’,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불렀던 ‘아리
아리 아리랑’, 헨델의 ‘울게하소
서’, 구노의 ‘아베 마리아’ 등 모
두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함으로
써 모인 모든 청중들과 진정한 음
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두 곡의 앵콜이 끝나고 조수미
씨는 ‘보리밭’을 다같이 합창하
기를 제안하며 피아노 앞에 앉았
다.

인간이 지닌 목소리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정상의 테크닉으로 가장
난해한 성악곡들을 소화하여 팬들
에게 들려줌으로써 경이로운 음악
의 여신으로 갈채받는 성악가 조

수미씨의 모습과 이러한 신비로운
음악의 힘을 더 많은 청중과 나누
기 위하여 자신의 레퍼토리를 지
속적으로 넓히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노래하는
조수미씨의 모습, 이 두 모습을 함
께 볼 수 있었던 보기 드물게 이틀
달고 만족스러운 음악회였다.

<투고자 김수현·음대 88년 졸>



침략자의 전당 정국신사(靖國神社)

김 일 훈 <의대 57년 졸업>

일본의 모리(森) 전 수상(首相)의 "일본은 신국(神國)"이란 발언에 이어 이번 고이즈미(小泉)수상은 "야스구니(靖國) 신사(神社) 참배를 공식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일본은 교과서외국과 함께 황국사관(皇國史觀) 시대로 복귀하려 들고 있다.

정국신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천황(天皇)을 위해 죽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영혼을 담은 전당(殿堂)이다.

이곳에 모셨다는 귀신의 총수는 현재 246만 6천이고, 여기엔 침략을 주도한 자를 비롯해 극동제판에서 전범으로 처형된 자들도 포함되었다. 천황을 위해 죽은 자들은 우리 한국과 동양침략자들을 포함하는지라, 일본수상의 정국신사참배가 우리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제시대 일본은 천황을 위해 죽어서 정국신사에 돌아오는 것이 국민최대의 영광이라는 듯 찬양하고 기만하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돌도 없는 귀한 자식이 전사(戰死)해서 그곳에 묻혔는데도, 신사에 찾아간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위선(僞善)에 찬 노래로 국민을 세뇌하려 들었다.

우에노 역(上野驛)에서 정국신사까지,
지팡이를 짚고서 하루종일 걸어왔네
아들이 왔다기에 만나러왔네.

이렇게 훌륭한 전당가운데
내 아들이 신(神)으로 모셔있는
그 고마움에,
어머니는 너무 기뻐
울고 있다네

지금 위의 노래 가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가소롭고 그들 종족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한국정부는 월드컵게임 공동개최, 일본문화개방,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진 등 일본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새 일본정부는 외국침략을 합리화하려는 교과서 외국과 더불어 침략자 찬양이라 할 정국신사 참배 공식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국신사참배는 일본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교(政敎) 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에 관여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의 앞잡이인 수많은 전쟁범죄자들이 함께 담겨있는 그곳 참배는 한국등 이웃나라에 대한 큰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정국신사"란 어떠한 곳인가의 내력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본래 일본 명치(明治)혁명이라 할 덕전막부를 무너뜨린 전쟁에서 천황편인 관군(官軍)의 전몰자 위령(慰靈)에서 비롯해서, 1879년 명치초기의 내란에서 천황정부측의 전사자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일본인 중에서도 천황 쪽 편든 자만을 모신다는 이 신사는 "천황의 나라 내외를 문란케 하는 원수들을 형벌 할 때, 먼저 달려가서 죽은 자들을 제사(祭祀)지내어, 황국을 정국(靖國) 어지럽던 나라를 평안히 진정시키는 일"하려는 신사(神社)"라는 것이 그 제문(祭文)이며, 신사의 이러한 성격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있어서 변함없이 일관해왔다.

이렇듯 정국신사에 모셔진 귀신은 첫째 천황을 위해, 둘째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해 전투에 참가한

자들에 제한돼 있다. 그래서 종전과 더불어 새 출발한 일본평화헌법의 2대 기둥은 첫째 "천황과 신도의 극복"이며, 둘째 "평화 즉 군국주의 배제"였던 것이다.

필자는 위의 첫째 문제와 관련해서 전번 글 "일본신도와 천황족(7/30/01)"에서 논의해보았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 대해서 최근의 역사교과서 외국과 연결지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소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우익인사그룹이 만든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최근 일본문부성 검열을 통과했다. 이 모임의 회장이라는 자의 말에 의하면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과거"의 부정과 불공평을 "현재"의 기준에 의해 판정하거나 고발하는 일은 잘못이다. "과거"의 여러 시대에는 제각기 특유의 특색이 있었고, 특유의 행복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교과서에서는 황국사관이 주가 된, 옛 교육칙어(教育勅語)와 대(大) 일본제국 헌법을 예찬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양심적인 일부 국민의 반성을 자학(自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특이한 사상과 역사관이 내년부터 일본의 교육현장을 차지하게 됐으니, 바야흐로 그들은 황국사관으로 복귀할 준비태세를 갖춘 셈이다. 그들은 조선반도를 "일본 열구리에 돌출해서 언제든지 찌를 수 있는 칼"이며, 일본을 러시아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백인의 식민지 지배에 고통받는 동남아를 해방시켜 그들에게 독립의 꿈을 가지게 했다는 망언을 함부로 하고 있다.

그네들의 과거 선악(善惡)판단



에 의해서, 요즘 세계적 이슈가 된 "조선인 위안부" 문제도 교과서에서 삭제해버렸다. 천황을 위해서 강제로 징발해간 위안부문제는 조선여성에 대한 성적(性的) 착취를 넘어 이것이 민족적 착취며 민족말살 행위라 할 수 있는데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죄악이 아니라 절면피한 주장이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전쟁에 희생된 국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전쟁지도자들을 그들의 법으로 모두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스의 죄악상을 국민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자기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살게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국 일본"은 국제제판에서 단죄된 자 외에는 전범자 누구하나 국민의 지탄받음이 없이 전후 일본 권력의 중추에서 활약한 자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들의 후계자들이 이어받아 "일본은 신국" "정국신사 공식참배"등 망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언동이 아직도 일본의 침략과 잔학성을 잊지 않고 있는 한국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들은 알아야 할 일이다. 새로운 교과서는 침략행위를 당시의 시대조류라 옹호하며, 일본은 서구열강의 식민지 정탈을 모방했을 따름이라고 한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을 수가 있

겠는가. 백보를 양보하고 그것이 시대조류인 역사의 한 토막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한국 침략은 문제가 달랐다. 서양의 경우 Corpus Christiandum(기독교 공동체)이 외부의 자생능력이 없는 후진지역을 식민지로 해서, 한편 다스리며 다른 한편으로 착취했다. 그런데 한국 중국은 일본과 같은 한자와 유교문명권이며, 하등 남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민족이 아닐뿐더러 문화면에서 일본의 선배요 스승의 나라였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무력으로 침략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던 족속이, 이제 와서 과거침략역사를 세계조류에 동참했다는 듯 합리화하고 침략자 전범(戰犯)들의 소굴에 참배하려 든다.

일본명치유신의 명사(名士) 가쓰(勝海舟)는 "일본은 과거 조선에서 너무 많이 배웠다"고 말하며 당시의 정학론(征韓論)을 반대했다.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였던 도꾸도미(徳富)씨는 그의 역사책에서 "임진왜란은 당시의 일본으로서 사치스러운 외국유학이었다"며 침략에서 얻는 문화적 소득을 강조했다. 옛날 기준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의 새 교과서는 스승의 나라 침략을 옛날 시대조류라 억지부리고 있다.

일본 침략의 최대 책임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천황이다. 극동제판에서 전략상 천황이 전범에서 면책됐어도, 침략과 전쟁의 잔학행위가 모두 천황의 목인아래 감행됐기 때문이다.

소화천황이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졌을 때 영국신문은 잔학한 일본군에 희생된 포로들을 기억하며 "지옥은 사악한 천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한바 있다. 천황을 위해 침략자 앞잡이 노릇 하다가 죽은 귀신들을 국가적으로 섬기자는 일본수상의 새로운 발상 즉 "정국신사 참배"는 이웃나라 침략을 예찬하는 행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2001년 8월 7일 씀)

서울 총동창회 관악산 등산대회에 미주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2001년도 서울대가족 친목 등산대회 안내>

머나먼 미국에서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 주시는 여러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벌써 23번째를 맞이하면서 서울대 가족들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한 모교 HOME COMING DAY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사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서울대인들이 이날 하루만은 관악을 찾아 호연지기를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날을 기해 고국을 찾으시는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001년 10월 21일 (일요일)
- 등산 행사 내용
 - 08:00 : 접수시작 (접수처 :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 09:00 ~ 12:00 : 접수를 마친

동문들은 인솔자를 따라 그룹별로 관악산 산행 (산행은 2시간 가량 소요되며 평탄한 코스임)

- 12:00 : 중식 (도시락과 음료를 배분받아 수목원 잔디밭에서 식사)
- 12:30 ~ 01:00 : 그린스카우트 선서식 외 인사말
- 13:00 ~ 15:30 : 친목을 위하여 다채로운 경품추첨 및 오락행사
 - 행사장소와 산행 코스
 - △ 등산행사는 서울대 대운동장

- 교정 동쪽보도를 따라 공과대 신공학과 방향 →관악산 합류→아카시아동산→무너미 고개→농생대 관악(안양)수목원 잔디동산
- △ 의식 및 친목 행사는 서울대 농생대 관악 안양 수목원(안양유원지 끝지점).
- 기타 안내 참고사항
 - △ 본행사는 서울대 가족(동문과 동문가족)모두가 참석 가능함.
 - △ 행사당일에 필요한 중식등 식·음료는 본회에서 제공합니다.
 - △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모교대운동장 집결지에서 접수 후 등산을 하며, 단체 참석시는 (각 학과별, 기별 모임 또는 기타모임) 미리 총동창회로 연락바람.

△행사후 모교의 통학버스는 노약자를 위해서 운행될 예정이나, 안양 유원지 입구에 있는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및 국철:관악역)을 이용하기 바람.

○기타 문의 사항
△ 연락처: 총동창회로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로 문의바람.
2001년 9월 15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재순

사랑은 오래 참고 <북한 방문기>

- '朝國'을 祖國속에 안기 위해

백순 <법대·1958년 입학>



proach)경제 개발모델이나 중국/베트남의 점진적(Gradual Approach)경제개발 모델을 따라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 3의 경제개발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아일랜드 / 스위스식 IT산업중심 경제개발모델이나 박정희식 군사 독재적 경제개발모델을 반드시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경제개발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혼자 과학적인 추측을 해 보았다.

“해외동포 여러분, 조국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뒷 말의 억양이 약간 올라간 듯한 여성 접대동무의 인사말을 들으며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것은 점심쯤 된 시간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접대원이 말한 ‘조국’은 ‘조상의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외동포위원회에서 나온 두 분의 안내원을 따라 차창 밖으로 바라보는 산천과 평양 시내의 건물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조용한 분위기 이외에는 별로 이상한 나라의 풍경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았다. 평양의 외부모습은 웬만한 문명국가의 도시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건축물 이외에도 병원, 아파트, 학교, 실내운동장, 호텔들은 북한의 경제가 팽창을 때에 주로 건설한 것이어서 오래된 시설물이지만 현대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월초까지 북한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로 평양과 평양근교, 그리고 평북 묘향산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담당자와 의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평양산원(산부인과 병원), 평양근교 북새 종합진료소(2만명 인민담당 보건진료소)등을 방문하여 가지고 간 항생제, 구충약, 설사약, 청진기, 여러 종류의 의료기제등을 전달하였다.

정치적인 것 이외에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황에 대하여 많은 소식과 의견을 들었지만 보통 상식적인 내용의 사항들, 즉 북한동포의 빈곤, 사회/경제적인 낙후성, 정치/군사적인 경직성등을 넘어서 몇 가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첫째, 외형적인 모습은 현대 발전도상사회의 형태에 그리 뒤지지 않은 정도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내부의 기재, 물품, 운영체제 등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어떤 전문기관이 연구/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인프라구조가 한국의 1970년대 중반기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는 북한경제가 한국의 경제발전상태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Joan Robinson이 1960대에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경제를 ‘기적’이라고 칭찬했던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내부의 상황을 관찰하여 보면 인프라구조의 낙후성을 즉시 감지할 수 있었다. 평양산원은 평

양 내 모든 초산산모가 이용하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11층의 석조건물은 거대하고 우리가 보통 현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병원건물과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모든 기계, 기재(청진기등)등이 15년 / 20년 전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약품도 극히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평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고등중학교인 제일모란봉고등학교(1,200명 학생)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20여 년 전에 건립한 7-8층의 석조 건물 내에 반, 복도, 강당, 실험실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은 운동기구, 실험기재 등이 10년 - 20년 이상 오래된 옛것이었고, 특히 3개의 컴퓨터 방에 있는 컴퓨터장비가 수도 매우 적었지만 기종이 지금 이곳에서는 폐쇄된 것이었다.

둘째, 북한의 사람들은 체제적인 이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만경대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고등학생들, 호텔근처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대학생/전문대학원생들, 지하철역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인민학교학생들, 음식점/판매소에서 만났던 접대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미국에서 온 해외동포라고 해서 우리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들의 언행에서 매우 순진하고 정직한 면이 많이 엿 보였다. 보통 한국이나 미국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 느끼게 되는 ‘현대의식’ (?)을 감지할 수가 없었다. 물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북한사회의 일용적인 체제와 그에 대한 어릴 때부터의 교육/훈련이 북한사람들을 단순하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순박성’이 좋았고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 동포들의 순박성이 언제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된 한국의 앞길에 훌륭한 공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상상마저 있었다.

셋째, 북한은 그 사회전체가 그들이 유지해 오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종교적인 신봉뿐만 아니라 ‘금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양거리와 농촌마을마다 현수막에 구호로 걸려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지하게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만은 곧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터이니 잘사는 해외동포가 못사는 동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의 지도층들도 북한경제가 영망진창이고 빈곤이 극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러시아/동구권의 빅뱅(Bing Bang Ap-

proach)경제 개발모델이나 중국/베트남의 점진적(Gradual Approach)경제개발 모델을 따라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 3의 경제개발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아일랜드 / 스위스식 IT산업중심 경제개발모델이나 박정희식 군사 독재적 경제개발모델을 반드시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경제개발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혼자 과학적인 추측을 해 보았다.

짧은 기간동안 북한방문을 마치고 북경과 서울을 거쳐 워싱턴 DC까지 오면서, 거리를 자유자재로 자동차로 질주하는 사람들, 점심을 먹으러 가는지 함께 어울려 걸어가는 젊은이들, 공항 내에서 짐을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평양시내거리에서나 시골길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남루한 북한동포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마음속 깊이 새기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구제가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그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형제자매를 보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를 살펴 볼 때에 경제적/문화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의 전달/경제적 협력에는 인내와 시간이 요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바울이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나열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7면 정상회담서 계속>

남북관계의 전망

6개월간의 공백기간을 거쳐서 당국자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8개월간 비교적 순조롭게 화해와 협력관계로 진행되던 상태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정상회담에 동의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사정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흉수, 가뭄, 경직된 체제와 비효율적 정책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부족이 계속되어 미국, 일본,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북한이 연명(延命)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UNICEF 회의에 북한외무성 최수현부상(차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22만명의 북한주민이 아사(餓死)했다고 한다. 북한의 1인당 GNP는 991달러에서 457달러로 줄었고 보건제도도 붕괴되어 가고 있어서 유아사망률이 1000명중 14에서 22.5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급박한 환경에서 남한이 경제협력을 제의했고 철도,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원의 현대화도 돕겠다는 의도를 김대통령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2000년 3월에 한 연설에서 밝힌 것—특히 이것을 사전에 북한에 알려준것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전술적이

지 전략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북한의 대남 무력공산화 전략도 수정 내지 폐기되었다고 본다.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자멸 또는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 못지 않게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가장 큰 수확은 김정일의 대남 및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다. “불량국가”(rogue state)의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는 남한과 전세계에 위성중계 된 언동(言動)을 통하여 자신 만만하고 언변도 좋은 지도자, 남한의 KBS뉴스와 CNN방송도 정규적으로 보는 외부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180도 바꿀 수 있었다. 그후 북한의 외교가 활성화

하고 유럽연합의 15회원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된 것은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의 후광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진전 아닌 후퇴를 경험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에 연계시킨 것은 북한이 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대북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와 한국 전쟁중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작업은 아직도 계속중이다. 북한은 남한에게 비료원조와 전력지원을 요구하여 남한은 20만톤의 비료를 무상(5천만 달러 가치) 공급하였다. 작년에 공급한 30만톤을 합치면 모두 50만톤의 비료가 북으로 간 것이다. 북의 연간 50만KW의 전력지원 요구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북한이 이념적 및 체제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남북관계를 3월 이전의 상태로 점진적으로 회복시킬 확률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남한의 정치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북한에게 더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부시 행정부도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제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재개는 머지않아 북미관계도 소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정책은 경직과 유화를 혼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고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에 맡겨야



慎鎭廈(61년 文理大卒) 모교 사회학과 교수, 교수협의회장

기초학문 증시는 보편적 학문관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는 학문체계를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으로 구분해서, 기초학문을 먼저 강조하고 그 토대 위에 응용학문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학문의 본질상 기초학문이 선행되어 연구교육되어야 동시에 응용학문도 더 잘 연구교육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는 것은 전 세계의 상식화된 일반적 학문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도 이러한 전통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능률과 수익이 발생하는 쪽을 중요시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대학과 학문의 원칙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학문세계와 산업·시장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BK21사업의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은 WTO체제 이전의 기술의 국제적 자유 이전, 과학의 자유 이동이 무상으로 허용되고 장려되었던 때의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현재의 국제경쟁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초과학에서 새 아이디어가 주로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세계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에 의해서 찬란한 창조적 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대학만 육성하면 된다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기초과학을 육성해서 대학원 중심으로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새 이론을 만들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잠재력 경쟁력 세계 정상이지만

서울대의 경쟁력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면 첫째는 잠재적 국제경쟁력, 둘째는 현재적(표출적) 국제경쟁력입니다. 우선 서울대의 학부·학사과정의 잠재적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심지어 서울대에서 떨어진 학생이 하버드나 예일대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들 70~75%가 미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인데, 서울대 재학생 중 상위 5%내의 학생들이 교수가 된 것입니다. 잠재적 경쟁력은 서울대 교수가 세계 정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잠재적 경쟁력을 현재적 경쟁력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동경대가 1 대 9, 하버드대가 1 대 10 정도인데 반해 서울대는 1 대 27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두 세배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연구가 방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수 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봉급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와 비해 55%밖에 안됩니다. 학교전체 시설은 괜찮은데, 교수에 대한 지원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경쟁력은 세계 정상의 하나인데 현재적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의 국제경쟁력은 55위 정도에 있습니다. 세계대학의 55위 중 30개 대학이 미국 대학입니다. 나머지 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논문편수와 국제 잡지에 게재된 순위로 55번째인데 나라별로는 5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대한 교육지원은 맨 처음에 약 800위에서 BK21을 통해 지원받아 약 600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가 전세계적으로 55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대에 대한 연구자원이 강화 증가되면 서울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정상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문제점 제일 잘 알아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학교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루듯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학을 대학자율에 맡깁니다. 원칙만 정해주고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대학 육성연구기금을 정부 재정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면 각 대학이 추천한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20개 대학만 지원해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20위에 들어가 대학 재정이 풍요해지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합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대가 우뚝 솟으니까 그것을 눌러 하향 평준화해서 어떻게 하려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심한 정책입니다.

우선 정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을 대부분 초등학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도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와 똑같이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그래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이미 학생들의 실력이 증명되었고, 교

수들은 교육부의 행정관리보다 판단력도 높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중·고등학교처럼 다루니까 대학들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관해서 지시 감독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수한 기구를 두어서 지원만 하도록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만 행정간섭을 하고 있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에 대해 이렇게 교육부가 행정간섭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서 대학을 자율화시키지 않으면 대학은 국제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둘째는 기초학문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BK21 시행 후 서울대에 투자가 되었지만 교수들에게는 지원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대학원 학생들에게만 투자가 되었고 교수들은 지도만 하는 것입니다. BK21에 포함된 대학원 학생들은 여유가 생겼지만, 정작 연구를 하는 젊은 교수의 봉급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55%수준에 묶어두고 어떻게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까?

학사과정 폐지는 현실성 없어

서울대 내부의 개혁은 해야겠지만 張會翼교수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만 두는 방법은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은 학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이고, 또 이 학생들 중에서 상위 5%가 교수로 뽑혀왔기에 잠재적인 연구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학사과정 없이 대학원만 가지고 대학을 우수하게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타대학 학사과정 졸업생이 출신 대학의 대학원으로 우선 진학하지 왜 서울대 대학원으로 오겠습니까.

대학원 중심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종래 학사과정만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동시에 대학원도 중요시하는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학사과정을 없애거나 유보하거나 약화시키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대는 Inbreeding한다?

Inbreeding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Inbreeding은 예를 들어 교수직 자리가 하나 있는데 10명이 지원하여 성적을 매겼을 경우, 1등이 타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이를 버리고 2등이나 3등이 자기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현실을 예를 들면 교수 지원자 10명중 1등에서 7등까지가 서울대 출신이고, 8등부터 10등까지가 타대학 출신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때 1등인 서울대 출신을 뽑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Inbreeding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Inbreed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몇 년도까지 교수 정원의 3분의 1을 타대학 출신을 선임하라고 강요하면 Inbreeding 방지커녕 교수의 질을 푹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1등을 뽑되 단 1등이 타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모교 출신인 2, 3등을 뽑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고 해야 올바른 정책이지, 무조건 1등에서 7등을 찍혀 두고 타대학 출신인데 Inbreeding을 방지하기 위해 8등을 뽑으라고 하면은 못뽑는 것입니다.

채점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우면 서울대 교수는 채점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외부에서 채점을 하되 1등을 뽑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서울대 출신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대에 대한 억압정책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3가지 요인과 해결책

지난 학기에 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다고 답한 분이 85%정도가 됩니다. 그 위기 요인의 첫째는 교육부의 지나친 행정간섭입니다.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 과장도 간섭을 하려고 텀벌 정도입니다. 둘째는 교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총장이 독선적으로, 자의적으로 일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행정이 교육부의 행정을 쳐다보고 있고, 교수의 의견을 듣거나 실정에 맞는 행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교육부의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말미암은 대학 자율성의 소멸,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부의 지시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것, 교육 연구투자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행정간섭을 대폭 줄이고 대학에 대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교육 행정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민주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교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율성 없이 교육행정부의 눈치만 보는데, 총장은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행정 체계가 민주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투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강화가 있어야 서울대가 세계정상의 현재적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7월24일 대담녹음)

서울 총동창회보 8월15일자 전제

딸의 결혼식장에서...

張基南 <문리대·62년 입학>

<남편이 지켜야 할 10대 命>

1.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처럼 부인을 사랑하라.

- "검은머리 파뿌리까지"의 결혼 맹세를 잊지 말고 살아라.

- 부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가정의 평화, 행복은 오아시스처럼 샘물 솟듯 끝이 없다.

-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엢 5: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 부인에게 안정감, 보호감을 주라.

(베드로전서 3:7 남편 된 자들 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 녀리에서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무엇을 할까 하며 살아라.

- 비아그라 안 먹어도 될 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늙어서 구박받거나 IMF 시대의 한국의 은행, 기업처럼 퇴출 당하고 또한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 부인을 위해서 살면 만사형통, 가화만사성인 사실을 아느냐?

3. 부인에게 관용과 이량을 보여주어라.

- 남자의 매력과 인기는 넓은 도량에 있다.

(창세기 3: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고보서 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 남자는 늙은 후 아내를 졸졸 따라 다니는 힘없고 귀찮은 노인네로 변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아는가?

- 연로할수록 부인은 당당해지고 남편은 쫓그라드는 것을 명심하라.

4. 부인의 관심사에 큰 관심을 보여 주라.

(창 2: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주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 생일, 결혼기념일, Valentine's Day, Mother's Day,

Sweetest Day, X-mas Day 등을 기억하고 외식, 여행 등을 계획하라.

- 입으로 만의 사랑은 소용없다. 실천하는 남편이 되라.

- 마음으로만 깊이 사랑한다는 남편은 믿음은 있으나 입술로만 외치고 행치 않는 거짓성도와 같다.

5. 처가식구들에게 친절하고 관대 하라.

(창세기 29:18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둘째딸의 결혼식날. (사진설명) 장기남동문(좌에서 두번째), 신부 Jeannie양, 신랑 Nathan군, Mrs. 장(좌에서 다섯번째).

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칠 년을 봉사하리 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 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 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 아버지, 어머니의 제사날은 잊어버려도 장인, 장모의 생일, 결혼기념일들은 빼 속 깊이 아로 새겨라.

- 처가 집에 대한 불평, 불만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무덤까지 갖고 가라.

6. 남편의 넓은 도량과 부인의 세심한 배려의 결정은 최고의 결과품임을 알아라.

- 아내가 집을 팔아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건 자동차를 새로 사건 잠깐 말고 공동명의로 해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하며 살아라

7. 부인과 자식을 위한 남편만이 사회와 국가가 원하는 인재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새겨두어라.

- 부인을 위하여 사는 길이 참다운 신앙 생활의 기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다.

- 친구, 사회도 모르고 교회와 직장, 그리고 집만 이는 지나친 가

정형 남자도 문제다.

8.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라.

(마태복음 27:19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좋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음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통히 앓았나이다 하더라)

- 실수와 허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안 밟겠다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어라. 부인의 잔소리라도 명심보감보다 훨씬 낫다는 불변의

지리다.

(여호수아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영적 지도권을 유지하여야만 야복한 가정, 올바른 건전한 가정교육 속의 사회, 국가가 원하는 자식을 키울 수 있다.

10. 남편은 왕 중 왕이다. 폭군이나 독재자는 아니다.

-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늙어서 구박받는 남편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말로처럼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부인과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이 사회, 국가를 사랑했으며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적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IMF 시대다.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스러움의

9. 가정의 영적 지도권을 늘 유

老夫婦의 사랑

신장 기증자 찾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중서부지역 동문화 창립 회원



이시며 제 1대 회장을 역임 하셨습니다 이 날까지 동문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기억(문리대 47년 졸업) 동문의 부인 천 옥순 여사께서 신장(콩팥) 기증자를 찾습니다.

병환이 깊어서 하루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혈액형은 O형 RH+ 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전화 414-351-2298 이기억



지하다.

(여호수아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영적 지도권을 유지하여야만 야복한 가정, 올바른 건전한 가정교육 속의 사회, 국가가 원하는 자식을 키울 수 있다.

10. 남편은 왕 중 왕이다. 폭군이나 독재자는 아니다.

-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늙어서 구박받는 남편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말로처럼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부인과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이 사회, 국가를 사랑했으며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적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IMF 시대다.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스러움의

파괴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편집자주>

Mrs & Mr. 장기남 동문의 차녀 Jeannie양과 Mrs. Stana Iseman & Mr. Robert H. Iseman(NY lawyer)의 자 Nathan군이 지난달 8월 12일 Yorkfield Presbyterian Church(1099 South York Road, Elmhurst , Illinois)에서 400여명의 친지 및 하객들의 축하속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 Jeannie와 신랑 Nathan군은 Bowden college (Maine주)의 선후배이며, Nathan군은 현재 미국 해병대의 현역 중위로 복무중이며, 결혼식은 대학시절의 Bible Instructor였던 Rev. David Pitt씨와 그의 삼촌인 Rev. John Burton 씨의 공동 집례로 이루어졌다. 이 결혼식 날짜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신랑측 가족중에 great-grandparents인, Edna and Ellsworth Hemstreet는 1919년에, 외삼촌인 Jean Hemstreet and John David Burton 부부는 1945년에, 또 Aileen Aldrich and Stanley Hemsreet 부부는 1948년에, Hoogveen and Steven Hemstreet 부부는 1986년에 똑같은 날인 8월 12일에 결혼하였다. 가족들간에 똑같은 날에 뜻깊은 일을 다같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또다른 기쁨이다.

위의 張동문의 십계명은 원래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던 것인데,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편집자는 이에 전제함. "공처가"와 "길처가"인본은 읽을 필요가 없음을 만천하에 눈물을 머금고 편집자는 알려드립니다.

장석정 동문 (법대 72년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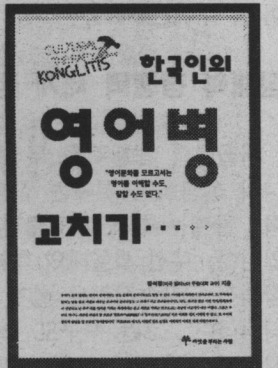
"한국인의 영어병 고치기" 출판

현재 일리노이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석정 동문은 한국인의 고질적인 영어병을 극복하고, 영어숙달에 이르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어공부 지침서를 내놓았다.



20여년 간의 미국생활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법률, 교육, 종교, 음식, 스포츠, 음악, 오락, 날씨, 풍속 등 각 분야에 걸쳐 미국인들이 쓰는 어휘와 표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저자연락처 : 전화 (309)664-



090, sjchang@ilstu.edu
 ○출판처 : 씨앗을 뿌리는 사람, 416페이지 21,000원,
 ○구입처 : 동문이 창업한 서울서점(773-463-7756)을 비롯한 미국 주요 서점

河祥培 선생 영전에

이희경 <의대 61 졸>

친구여 어딜 가오
저승에 무슨 할 일 있어
왜 이리도 서둘러서
혼자서 훨훨 가시는 거요

이들이 멀다 하고 내방을 들러
곳은일 밝은 일 희로애락을 나누
며 고통스러울 때 위로하고 희망
적일 때 격려해 주든 그토록 정답
든 형이여! 그대가 남기는 이 적막
하고 허망한 공백을 나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 지 모르겠소.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학창시절
돈암동, 명륜동 하숙방에서 시작
하여, 군의관 시절과 미국생활 근
30년을 거쳐 우리들 생애의 마지
막 생업의 종착지인 서울중앙병원
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떨어져 있
었지만 많은 세월을 가까이서 동
고동락하며 살아왔구려. 젊었을
땐 그 젊음을 불태우며 신천지에
발 부치려 노력하였고, 어린 자식
들이 성장하여 우리들 보다 더 굳
건히 미국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
리는 걸 보며, 고국을 향한 향수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도 유달리 그
대와 나는 비근한 행로를 걸어 왔
구려, 학창시절, 전쟁후의 그 황
량한 문화의 불모지에서도, 그대
는 서울의대의 전통이 된 메디칼
코러스의 주역으로 푸치니, 베르
디의 아리아를 불러 나와 같은 음
악의 문외한에게 귀를 열어 주었
고, 뉴욕에서는 고국에서 인기 있
는 가요를 남 먼저 습득하여 친구
들 모임에서 선보이고, 미주의 방
방곡곡에 흠어져 사는 동기들의
매년 모임인 8월 reunion(회동)
에는 그대가 빠져서는 안될 만큼
그대의 아름다운 노래와 해학은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명
약이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동
창회나 친지들의 모임에는 만사를
제하고 참석하여 도와주던 형이
여, 이제 정말 서럽고 아쉽소.

예과시절 운동회의 중거리 달리
기에서 발군의 선두로 늑름히 달
려 들어오든 그대의 주파력은 훗
날 미국 Long Island 교회 운동
회에서도 50대이던 그대가 30-40
대젊은이들을 제압했다는 예피소
드로 연결되고, 근년에는 jogging
하며 만나는 젊은 주자들을 도전
하곤 하던 습성이 있었다는 사실
들이 오늘은 알갭게도 원망스럽구
려.

7년 전 8월 제가 부임해 왔을 때
수개월 앞서 와 있던 형이 반가워
서 나를 얼싸안든 그 뜨거운 정 내
어느 평생인들 잊을 수 있으리요.
주말에 틀나면 바둑판에 마주앉아
기껏 초심을 면한 기력이지만 밤
늦어 지는 줄 모르던 흥취와, 요즘
에 와서 빈번히 계획해 보든 희망
찬 은퇴생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왜 이리도 속절없이 가시는 거요.
불과 지난 주, 형과 나, 우리들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 그 악
마의 폭파가 있을 때, 그렇게도 애
타든 몇 시간후 모두가 무사함과
특히 형의 막내 Judy의 극적인 모
면을 천우신조로 감사했는데...
그토록 사랑한 세 딸과 부인 그리
고 손자 손녀들을 두고 어떻게 이
렇게 바람처럼 떠날 수 있단 말이
오. 언제나 앞서가고 지기를 싫어
하던 그대가 이 마지막 길 마저 먼
저 가는 데는 이승에서 할 수 없는
무슨 사명을 먼저 가서 하려는 꿈
공이 욕심 때문이지 싶네.

후학들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
던 패기와 열정은 한 장의 사진 속
에 담긴 젊은 날의 모습만이 아니
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따듯
한 체온으로 감싸 안던 당신을 그
는 잘 알거니와, 그대를 가까이 지
켜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전수되는 귀감이 될 것
입니다.

친구를 떠나보내려니 떠오르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별이여,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애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여”

그래도 저러오는 서러움 추스릴
길 없습니다.

상배형, 사랑하는 내 친구여!
국내외 여러 친구들의 애도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생의 하찮은 번뇌는
훌훌 버리시고

천국에서 안주하며 그대가 사랑
하는 유족을 굶어살피시기 바랍니다.

형의 훌륭한 세 자녀 Connie,
Gloria, Judy가 어머니를 어렵히
잘 돌보겠지만, 우리 부부도 풍납
동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그 정 변
함 없이, 역경에서도 행복했던 날
들 기억하며, 형을 다시 만날 그때
까지 돌보고 지키리다.

잘 가시오.

2001년 9월 22일

애통하는 벗 이희경 올림.

뉴잉글랜드지역 소식

한인 친선 골프대회 주최

지난 수년간 뉴잉글랜드의 여러
대학 동창회간의 상호 친목을 목
적으로 열어 온 GOLF 대회를 금
년에는 지난 해 우승팀인 뉴잉글
랜드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주최하기로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예년과 달리 참가
범위를 넓혀 지난 대회에 참여한
여러 대학 동창회는 물론, 한인
회,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 교회
팀도 초청하여 거행한다.

이는 본래의 취지였던 대학 동창
회간의 친선뿐만 아니라, 뉴잉글
랜드 한인사회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
다. 또 대회의 수익금은 한인단체
에 대한 보조와 장학기금에 쓰일
것이다. GOLF COURSE 는
BOSTON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도 더 좋은 곳으로 정하였고, 경기
후에는 사인조 악단의 흥겨운
BAND와 더불어 풍부하고 알찬
상품이 있는 RAFFLE,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마련한 저녁
이 제공된다. 주최측은 많은 분들

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 일시 : 2001년 10월 20일 (토
요일) 11시 정각
▶ 장소 : RIVERBEND
COUNTRY CLUB
▶ WEST BRIDGEWATER,
MA.

▶ 전화 : 508-580-3673
▶ Rte 24에서 Exit 16A 으
로 나와 Rte. 106 동쪽으로 2.7 마일
가면 오른쪽에 위치함. ▶참
가자격 : 사인조 각 대학 동창회,
한인단체, 종교단체별팀, 개인 혼
성팀 (남녀혼성가능)

▶일몰관계상 13개팀으로 한정
(선착순)

▶참가비 : 일인당 \$70
(CART, 중식, 저녁 포함)

▶상품 : 팀 우승상, 개인 우승
상, 근접상, 장타상, 장려상

▶연락처 : 정정욱 (508-336-
5580), 변종원(508-366-2743)

▶CLUB이 COURSE를 단지
않는 한 일기에 관계없이 대회를
진행함. (투고자 이재신 회장)



鶴駕仙鄉

부고

河祥培(의대 61년 졸)

하상배동문이 9월 19일 서
울에서 갑자기 별세하였습니
다.

하동문은 66년도에 渡美하
여 Suny Downstate Medi-
cal Center(NY)에서 재활의
학과 주임교수와 과장을 지내
고, 95년 귀국하여 현대 중앙
병원 재활과 과장직을 맡아 한
국 재활의학계에 다대한 공헌
을 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인 수련여

사와 세 따님(Conie,
Gloria, Judy)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대 병원장으로 장
례를 지냈고 화장한 유해를
NY으로 유가족이 운구하였
다. MEMORIAL SER-
VICE는 오는 9월 29일 토요
일 Glen Cove, Long Island
에서 거행 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큰딸 Connie
516-759-7598

<투고자 권순홍 동문>

부고

趙鴻(의대 61년 졸)

조홍 동문이 9월 30일 오전
에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1965년도에 도미한 조동문
은 NY-Bellevue Medical
Center에서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유명한 Karen
Horney 정신분석원에서 정신
분석학을 수료하였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 획
득후, 몇몇 병원을 거쳐
South Nassou Community

Hospital (Long Island, N.
Y)에서 오랫동안 과장으로 근
무하다가 약 1년전에 은퇴하
였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Sally와
딸 Sarah, 사위 Peter, 아들
Stanley 와 손자 동현이는 모
두 New York에서 살고 있
다.

<투고자> 권순홍

친구들이여

부디

鶴駕仙鄉하여

편안하소서.

의과대학 61년 동기 일동

지방특집 일정

매월 들어오는 각 지역동창회 소식의 게재 이외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동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각 지역의 소식을 좀더 심도 있게 타 지역 동문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각 지역 동창회를 순차적으로 순방하여 각 지역동창회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기획을 하고자 한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01년 10월 : 남가주지역, 샌프란시스코지역 및 워싱턴주지역 동창회
- ▶2001년 11월 : 뉴욕, 하와이지역 동창회
- ▶2001년 12월 : 워싱턴 DC, 유타, 오레곤 및 캐나다지역 동창회
- ▶2002년 1월 : 조지아, 달라스,

- 휴스턴 및 아리조나지역 동창회
 - ▶2002년 2월 :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및 중부 펜실베이니아지역 동창회
 - ▶2002년 3월 : 시카고, 미네소타 및 하트랜드지역 동창회
- 각 동문들과 지역동창회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동문들의 활동상황 지역동창회의 역사 및 발전 사업 계획 기타 다른 지역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보내 주시면 모든 동문들이 즐겨 읽는 동창회보가 될 것이다.
- 특히 다양한 사진을 보내 주시고, 꼭 사진속에 든 인물들의 성명, 단과대학, 입학 또는 졸업 연도를 명기하여 주시면 영원히 살아있는 사진이 될 것임

재미 과학기술자협회 동정

재미과학 기술자 협회

재미과학 기술자 협회(KSEA :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는 1972년 창립되어 30년 역사를 가진 미국내의 대학교, 연구소 및 산업체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 단체로서 약 1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중에는 서울대 동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협회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연례 종합학술 및 산업대회, 2세 청소년 모국방문 심포지엄, 장학 및 모국방문 하계연수, 회원들의 직업 및 주류사회에 진출지원, 한국의 학계 및 산업체에 전문요원 소개 및 과학, 산업기술연계, 그리고 미주 한인동포지역사회에 과학기술 및 의학분야의 진학 및 직업전망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1999년 8월초에는 한국의 산학전문인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미주지역 종합학술 산업대회가 보스턴지역의 MIT에서 200-300여명의 전문인이 참가하여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과거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재미 동포 2세인 과학기술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장차의 협회의 지도자로 키우는 사업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北韓과의 과학기술교류에 미국 및 한국정부와 협조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9년 동안 과기협회장에는 대부분 서울대 동문(25명)들이 역임했는데, 초대회장으로 서울대학 화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김순경교수(일본 오사

카대졸), 2대 회장에 Marquette 대학의 이기억교수(물리과 47년졸), 3대 회장에 Penn State 대학 고 함인영교수(기계과 48년졸)가 역임했고, 10대 회장에는 李龍洛 박사(기계과 53년졸)가 역임했다. 근래에는 26대 회장에 시카고지역의 알곤연구소의 전경철 박사(화공과 62년졸), 27대 회장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이기동교수(조선항공과 67년졸), 28대 회장에 UCLA의 한홍택동문(기계과 64년졸)이 역임하였다.

협회의 본부는 Washington DC 남쪽으로 약 10마일 거리에 위치한 Virginia주의 Vienna에 있으며 3-4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또한 미주지역에 55개의 지부를 두고 있어서, 미 전역을 총괄하는 행사 및 사업과 각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 Venture Forum, 과학 및 수환경시대, 청소년을 위한 직업 조언 및 상담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재미과학기술인 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Web Page www.ksea.org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협회의 전화는 703)748-1221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동협회의 친구회장의 이취임이 있었는데, 두 서울대 동문간의 임무교대였다. 이임하는 29대 회장은 알곤 연구소의 정호박사(조선항공과 66년졸, 재미 총동창회 출판국장)였고, 그 후임으로는 보스턴지역의 Tufts University의 화공과 교수로 있는 성낙호동문(화공과 64년졸)이 3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두 동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30대 회장 成洛 昊 박사 (공대 64년졸 · 현재 Tufts대학 화학과 재료공학 교수) 응용화학 연구의 권위자

成洛 昊 박사 <30대 회장 >

성낙호 박사는 1940년 서울 출생으로 1964년 서울대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는 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화학석사를 받고 1971년 MIT에서 고분자 재료분야의 Ph. D를 받았다. (학위논문 Biopolymer Collagen의 Structure의 특징에 관한 연구 MIT에서의 중심연구는 Reinforcing fiber와 polymer matter의 interphase를 재단하고 design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78년에는 Tufts대학교의 화학과로 이전하여 재료공학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켰고, 89년에 LMI(The Laboratory for Materials and Interfaces)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그 소장으로서 있다.

LMI의 연구활동 중에서 성박사는 Fiber optic probe를 이용한 Fluorescences와 Ultra Violet Reflection or UV Reflection technique로 In-situ Reaction Monitoring Technique를 개발하였고, 이를 Fiber Reinforced Composite에 응용함으로써 In-situ Cure Monitoring방법과 "Smart Composite"개발하였다.



성박사의 또 다른 연구로서는 organic liquid & vapor가 polymer matrix에 sorption, diffusion되는 기초연구로서 응용분야는 packaging, toxic chemical containment, protective clothing, detoxication등에 중요한 분야이다. 그의 연구 논문들은 여러 학회지에서 발표가 되었다.

현재 성박사는 Tufts 대학의 LMI와 병행하여 최근에는 Tufts 대학에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MSE) graduate program을 창설하기 위한 committee chairman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6년 이후 한국내의 많은 연구소를 기술자문하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미국내에서는 여러 회사에 기술자문역을 하고 있다. KSEA활동으로는 1978년 New England 지부장으로 시작하여 지부평의원은 물론 본부의 Group G Councilor, 장기 계획위원, 지명위원, 장학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장), 학술대회 심사위원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활동중이다. (자료원 KSEA, Ja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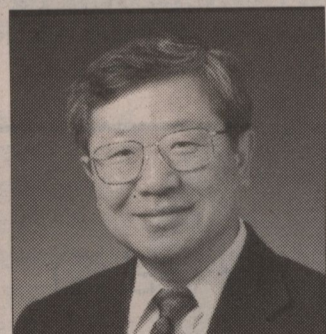
이임하는 29대회장 丁 湖 박사 (공대 66년졸) 구 소련지역 국가의 기술을 소개 산업화

丁 湖 박사 <29대 회장 >

정호 박사(조선항공과 66졸)는 미국기계공학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에서 20여년동안 활동해오고 있는데, 근래에는 동협회의 Executive Committee Member로 발탁되어 ASME의 출판위원회 위원장으로, 금년도 Atlanta에서 열린 연례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Technical Program Chairman으로, 그리고 내년(2002) 8월초에 캐나다의 Vancouver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총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세계의 30-40 개국에서 약 800명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모임을 3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2002년도 학술대회에, 정호동문은 한국의 기계공학협회 일본의 기계공학협회, 그리고 유럽의 기계공학분야 단체들 공동 후원으로 유도하여 더욱 큰 학술대회가 예상된다 한국측으로는 두산 중공업의 김재학 부사장, 성균관 공대의 김영진 교수 및 한국 원자



력 안전 기술원의 조종철 박사 등의 서울대 동문이 초대되어 학술대회를 돕고 있다.

미국 ASME내의 원자력 안전 기준 이사회의 이사, 원자력 공학분과의 부회장, 국제 원자력공학 학술대회의 Program Chair를 역임한 바 있는 정호박사는 서울공대 조선 항공과를 66년 졸업하고 ROTC 4기로 육군 수송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초창기 Computer요원으로 근무 도미하여 Tufts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Chicago MBA를 받았다.

MIT Lincoln 연구소 및 시카고지역의 알곤 연구소에서 27년간의 연구생활을 마치고, IIT에서 Hightech의 산업화분야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MITEC International을 창업하여 구 소련지역 국가들의 Technology를 북미지역에 소개하고 산업화하는 Project를 주로 하고 있다. (자료원 KSEA, May. 2001)

시카고지역 소식

시카고 지역동창회 테러피해자돕기 모금 참여

시카고 지역동창회(회장 : 조대현·아래 사진)는 시카고 한인회(회장:석균쇠)가 주관하는, 지난 11일 워싱턴 DC 와 뉴욕에서 발생한 미 역사상 최대의 테러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성금(\$500)을 17일 정오 중앙일보사에서 한인회장에게 전달하였다.



김일훈 출판 기념회

“김일훈(의대·57년 졸업) 동문의 수필집, 생활속의 역사탐구” 출판을 기념하는 의과대학 후배들(서울대 시카고 지부 64년 동문)이 주최하고 서울의대 동창회 시카고 지부가



후원하는 출판기념회가 9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동각식당(3580 Milwaukee Ave, Northbrook, IL)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판기념 준비위원회는 많은 동문과 친지들의 참석을 환영



합니다. 참석자 회비는 1인당 \$20임. 출판기념 준비위원 (Mr & Mrs.): 강창만 630-851-5666, 권오화 847-692-3336, 노재욱 847-272-5383, 임이섭 847-982-9474, 구경희 847-608-7879



▶ 金 동문은 한국의 잡지 ISSUE TODAY가 선정한 한국의 최우수 수필가 20인중의 한분으로 선정되었고, 오태희(예일대 의과대학교수)동문은 그의 독후감에서 “김선배님의 글에서 항상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터득하며 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시카고 지역 음악대학 동문회 활성화

동문 동정

최근 음대 동문회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회장에 김선영(82년 입학)동문, 부회장에 심병원(83년 입학)동문,

총무에 이소정(84년 입학)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여러선배님들을 추후 고문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투고자: 이소정동문)

전경철(공대입학)동문께 Washington D.C.로 이주했다. Mrs. 전경철께서 Bush 행정부의 여성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남가주지역 소식

노규상 동문(의대 66년 졸업)

인터내셔널 볼룸댄스 챔피언 획득

지난 8월 11일 Salt Lake City에서 United States Amateur Ball Room Dancers Association 주최로 개최된 2001 National Championship Contest에서 노규상 동문(서울 의대 66년 졸)부부가 Senior International Standard Championship Contest(50세 이상)에서 영예로운 Championship을 획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루 전인 8월 10일에는 Adult B(35세 이상) International Standard Championship Contest에서 Finalist(6th Place)를 획득하였다. Dance 종목은 Waltz, Tango, Mexican Waltz, Fox Trot, Quick Step 등 다섯 가지였으며 “Our dream came true. We are so lucky and happy”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그리고 championship을 내년도 지키기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껴서 벌써부터 부담감이 인식된다고 하였다. 노 동문은 LA 근교에서 Neurosurgery 개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Ball Room Dance Contest에서 많은 상을 받았으나 이번 대상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수상이었다. (노규상 동문연락처 310-271-3900) <투고자 김용재 동문 의대 66년 졸업>



승무(僧舞)

趙芝薰 (1920-1968)의 1939년 시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짊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짙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이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들린 외씨보선이여.

깨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라미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짊어서 나빌레라.

서울 총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or.kr>

온타리오지역 소식

온타리오 지역 동창회보 발행

< 편집자 주 > 온타리오지역 동창회(운영위원장 이이병)은 일년에 두 번씩, **온타리오 캐나다 서울대 동창회보**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미 그 첫 호를 내었으며, 곧 두 번째 회보를 낼 예정이다. 제 1호에서 다음과 같은 동문들의 소식을 전제한다.

< 금년도 임원 소개 >

운영위원장 이이병 (약 59) (B) 416-385-0107

총무 정순교 (약 61) (B) 416-512-1833
회계 김영제 (약 73) (H) 416-493-1582
서기 양관수 (약 70) (H) 416-229-6736

< 금년도 행사 >

* 운영위원회 2001. 05. 05
* 야유회 2001. 07. 07 (토)

견우직녀가 1년에 1번 만나는 날 11:00 am
G Ross Lord Park area #1(Dufferin & Finch)소나기가 와도함.

영동과 영서 대결 각종 game. 약대가 제공하는 많은 선물과 음식

* 골프대회 2001. 09. 01 (토) 09:30

Annandale Golf Club 회비 \$70.00 많은 상품, 트로피 동창회 기금포함 Golf & Hot Buffet Dinner with Wine

* 운영위원회 2001. 11. 03

* 신년파티 2002. 01. 26 (토) 6:00 p.

La Contessa Ballroom(Finch & Weston) \$45.00/p Dinner with Wine (2btl/tbl) & Cash Bardance 와 많은 상품

< 운영위원회 소식 >

지난 5.5. 운영위원장 집에서 모인 운영위원회에서는 동창회 운영방법(이사와 운영위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오는 11.3에 있을 제 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말로만 전해오던 동창회 운영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6가지 "동창회 운영규약을 만들었다"

< 동창회 운영 규약 05.05.01 >

1. 신년파티와 골프대회는 참가하는 동문의 회비로 운영한다.

2. 주소록은 주 광고수입으로 발행한다.

3. 동창회비로는 회보, 신문광고, 본부회비, 조의, 사무에만 사용한다.

단, 야유회는 동창회비로 운영하지만 \$1,000.00내외로 운영한다.

4. 동창회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단 수출입장부는 15년간 보관한다.

5. 동창회 비 소모품과 쓰고 남은 소모품은 분실 없이 인계한다. 비소모품 줄다리기를 줄

6. 동창회 운영규약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제정, 개정, 삭제할 수 있다.

< 동문 소식 >

(공대소식)

* 금년도 회장단이 결정되었다.



온타리오 지역동창회 운영위원장 이이병 동문 가족.

회장- 이영(1년), 부회장- 최왕수(62광산), 총무-백옥기 (68 공교)

* 금년도 골프대회를 6월 2일 1.00pm Tamoshanter golf장에서 했다.

* 공과대학 동창회 이사회가 구성되어 초대 이사장에 (2년 임기) 박재선(48섬유)동문이 되었다. 이사는 전 회장들과 현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 새회원

1. 이성호 Sung Ho Lee (72 전자)

4399 Trailmaster Dr, Mississauga, Ontario

L5V 1E2 Tel : (905)568-9447

2. Park Chul Bum (70 기계)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oronto

3. Lee Chi Guhn (86 기계)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4. Kim Sun chul (74 기계) Atomic Energy of Canada

2051 Grosvenor st. Oakville,

905-842-0314

5. Lim Jae Cheon (75 원자력) Atomic energy of Canada

4001 Bayview Ave. North York,

416-733-4418

< 법대소식 >

* 새 임원 회장- 김봉수(70법), 총무-박용환(83)

* 야유회 2001. 6. 23(토) Boyd Conservation

* 김동수(53), 김남천(57) 그동안 병환중이던 두 동문은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웅(47)- 지난 4월 7일 Oriental Feast 식당에서 6.25전쟁 50주년 기념 점심이 박동문의 주선으로 모였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

리에 법대 많은 동문이 동부인하여 참석하였다.

* 김봉수(70)-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이신 동문은 지난 3월 Prince Hotel에서 장학의 밤을 성공리에 마치고 금년 6월부터 다시 이사장에 연임되었다. 축하합니다.

< 농대소식 >

* 이인표(61축산)- 농대 동창회장인 동문은 Mt. Forest에서 사슴농장(Misty Dama Farm)을 운영하신다.

몸이 허약하신 동문은 물론 각종 질병에 좋은 사슴 고기등 각종 사슴제품을원하시면 연락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전화 519-323-9800

* 양정우(63농화)-York 대학구내에 Gift/Post Office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번영을 빕니다.

* 유동완(68 농화) - Guelph 대학 교수이신 동문은 지난 장학의 밤 행사에서 Scofield 박사 기념사업에 관해 강연을 하고 문하생이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 김영석(60 농화) - 금년 3월 부인 신동조 여사께서 54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슬픔을 이기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 장득선(57농학)- 30여년전 재직하시던 Owen Sound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직하고 연변대학 초청으로 조선족 학생들을 가르치러 떠났다.

* 이승찬(55농생) - 전남대학교 교수직(농학박사)에서 퇴직하고 꼬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오다.

* 허철성(77 축산) 한국 야쿠르트 연구실에 근무하는 허박사는 어린이 설사를 유산균으로 예방하는 연구차 Guelph 대학에 오다.

* 공영호 (79 입학) - 한솔제지에 근무했던 공동문은 forest specialiste로 독립이민오다.

주소 : 20 Graydon Hall Dr. #2109, North York, (416-443-9819)

< 음대소식 >

* 안병원(47)- 지난달 철의 장막안에 있는 이북을 다녀오시고 운영위원 모임에 참석하시어 북쪽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북의 명주 "용성술"을 가지고 오셔서 운영위원 모두 맛을 볼 수 있었다. 모쪼록 건강하시어서 조국이 통일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 유희자(59)-Royal Conservatory 교수로 계신 동문은 지난 4월 20일 중앙일보사 제정한 캐나다 예술문화상(음악)을 받았다. 또한 6월 2일 5명의 제자들과 파이프올겐 축제를 Deer Park 연합교회에서 했다. 축하드립니다.

< 문리대 소식 >

* 김숙(70사회)- 문리대 사회학과를 전공하신 동문은 토론토 총영사로 부임하시다. 교민사회와 서울대 동창회 발전에 많은 공헌하시길 바랍니다.

< 미대 소식 >

* 장연탁(60)- 지난 4월 20일 중앙일보사 제정한 캐나다 예술문화상(조각)대상을 받았다.

< 수의대 소식 >

* 조한철(46수의)- Cowboy들의 고장 에레조나에서 겨울을 나시고 캐나다 기러기와 함께 여름을 나기 위해 올라 오셨다.

< 약대 소식 >

* 약학동창회(회장 정순교, 총무회계 양관수)는 금년도는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약대가 운영을 맡고있는 관계로 별도행사를 하지 않고 서울대 동창회행사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동정

야유회

견우 직녀가 1년에 1번 만나는 날(7월 7일) 이어서인지 오후 한때 비가 내렸지만 10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이 모였다.

작년과 같은 Ross Lord Park에 모여 동창회에서 준비한 갈비, 콩치, 맥주, 상품과 약대 동문들이 준비한 맛있는 반찬, 밥, 음료수, 과일 먹고 나서 보물찾기, 톨푼선 던지기등 각종 Games등으로 하루를 즐겼다.

골프대회

부러운 더위도 지난 9월 1일 ANNANDALE GOLF CLUB에서 열린 동문 친선 골프대회에는 작년보다 적은 35명이 참석하였으나, 여성동문이 9명하여 여성Golfer의 증가를 보였다.

바로 구운 빵과 물로서 점심을 대신한 동문들은 Club House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Buffet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상식 때에 Door Prize, 기념품을 추첨하였다.

본부 동창회장 김재순 Trophy는 Gross Champion을 한 문리대 김현수 (58사회학과)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LONGEST(남) Mr. 이성호 (공대 72년 입학)
- ▷LONGEST(여) Mrs. 한상훈 (공대 52년 입)
- ▷NEAREST(남) 여문석 (문리대 63년 입)
- ▷NEAREST(여) 배기옥 (약대 56년 입)

< 골프대회에 상품 기증하신 동문 >

1. 상대 동창회 (회장 김장환) 상품 1점
2. 법대 동창회 (회장 김봉수) 상품 1점
3. 최왕수 (공대) 상품 1점
4. 허종수 (상대) 골프공 1BOX
5. 김 호 (미대) 상품 1점
6. 김현수 (문리대) Golf Bag
7. 임병년 (약대) IVORY 48개
8. 정순교 (약대) Shampoo 36개
9. 이이병 (약대) Palmolive 36개

하트랜드지역 소식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9월 29일 동문의 밤 개최

하트랜드 지역동창회(회장 김호원)는 오는 9월 29일(토) Kansas city 소재 Westin Crown Center Hotel에서 저녁 6시에 "동문회의 밤"을 가진다.

이날 행사일정은 저녁 만찬, 장학금 수여, 신구 회장단 이, 취임식(이임회장:김호원 차대 56년졸, 신임회장:이상문, 상대 61년졸), 경품 추첨, 음악 연주, 주제 강연 및 여흥 등으로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의 특별 배려로 저녁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Kansas City 남쪽에 위치한 Belton 시의 Eagle Landing 골프장에서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참여하는 골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투고자 배규영 동문)

하트랜드 지역 장학금 수혜자 결정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장학위원회는 2001년도 장학금 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성진경(Josephine Song, Tulsa, OK 거주) MIT 1학년 재학중

*박은영(Eun young Park, VanBrunnt, AR 거주) University of Arkansas 1학년 재학중.

*최보배(Lydia Choi, Overland Park, KS 거주) Syracuse University 1학년 재학중.

*박용락(Yong-Lak Park) 서울대학교에서 Agribiology 전공

으로 학사학위를 1993년에, 석사학위를 1997년에 받았고, 현재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곤충학(Entomology)박사과정 재학중임.

이상 세 명은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이며,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대학원 학생이 1명으로, 하트 랜드지역내 6개 주 중 4개 주에 한 명씩 장학금이 선발되었고, 장학금 총액 \$3,500.00을 수여하게 된다.

(투고자 전선옥 동문)

조지아지역 소식

김수일 · 최은영부부 Golf Hole-in-one 경사

지난 9월 8일 Al-pahretta, Georgea의 유명한 Golf course인 White Column Country Club에서 일어난 행운.

이날의 주인공은 Dr. 김수일씨와 그의 부인 최은영씨. Dr. Kim 부부와 Mr & Mrs Thomas Tyson이 한 조가 되어 Golf를 시작하여 No. 2 hole, 195yd에서 Dr. Kim의 #3 wood가 적중하여 hole-in-one이 되었으며 (up-hill hole에서 이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목격치 못함), #8 hole, 107yd에서는 Mrs. kim의 pitching iron이 잘 맞아, hole 6 龜et 앞에 떨어져 one Bounce 하고 난 뒤 hole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보기도문 일로서 행운의 날을 맞은 Dr. Kim 부부는 웃음 꽃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Dr. Kim은 Forest Park에서 개

오계숙 동문(미대 59입학) 미술 전시회 개최

Kansas City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계숙동문의 작품전이 "Stories from the Garden"란 제하에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Dolphin Gallery(1901 Baltimore Ave. Kansas City, KS)에서 열리고 있다. 자세한 보도는 10월 호 회보에 있을예정이다.

(연락처: 913-383-3529)

(투고자 배규영 동문)

문종현 동문(사회대 84) 조지아 총무로 수고

文 동문은 김만복 (문리대 72) 동문과 함께 운영하는 Good Nutrition을 확장 이전하였다.

주소 : 463 Beaver Ruin Rd. 입니다. 무병장수와 건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Tel. 770-409-8844)

스티브 姜 장학생(獎學生) 선발

스티브 강 장학재단 (The Steve S.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젊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스티브 강은 199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의 필립스콜 대학원생이었다.

이 재단은 스티브 강을 추모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금하여 평소에 예술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스티브 강을 추모하고 우수한 예술인이나 순수과학, 인문과학, 응용과학분야의 뛰어난 학

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되었다.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올해는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그 지급금액은 총 3만 불이며, 수여 할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 일반불의 장학금 (한명), 5천불 (2명), 2천불 (2명), 천불 (6명)

<장학생 선정기준>

학업성적, 예능 또는 창작력, 재정 사항 그리고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탐구력의 평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신청마감일 및 제출서류>

신청마감일은 10월 30일이며,

지망자는 이력서, 성적표, 재정보고서, 추천서 2통, 2페이지 정도의 수필을 원본과 그 사본 5통을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website sskangfund.org에서 download하여 작성하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 보낼 곳>

Mrs. C. Kimberly Kang
16 Forest Gate Circle
Oak Brook, IL 60523
Tel : 630-572-9202
Fax : 630-572-9765
E-mail : sskangfund@home.com

골프인생론

골프인생 1

골프를 치다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치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든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려나?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잊지말게 이번 실수 교훈 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골프인생 2

핸들을 줄이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18개 기회있고 72번 기대대네 조금 더 내보낼가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드니 뺨크랩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아닌 업보라네

<서울 동창회보에서 전재>

서울대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렵니까

<http://www.snu.ac.kr>

뉴욕지역 소식

한창섭 동문 (문리대 57입) 회장 취임

결산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어온 뉴욕지역 동창회장의 취임식이 9월 28일로 확정되었다.

이임하는 22대 회장에는 최철용 (농대 63년졸) 동문이 수고하였고, 23대 회장에는 한창섭(문리대 57년입) 동문이 수고하게되었다.

韓창기회장은 회칙상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나 22대회장의 임기중에 정리하여야할 문제들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인수하게

하려고 약간 늦어졌지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당초 9월 20일에 이취임식을 가지려했으나 미역사상 미증유의 월드 트레이드센타건물의 폭과 대참사로 인한 비상사태로 약 1주일간 연기되었다. 재미총동창회는 이임하는 최철용동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이 취임하는 한창섭 동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주시시오.

20회 골든클럽 골프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20회 골든클럽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86세의 이규용동문 1등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의 골든클럽(회장 정택수)은 8월 30일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레이 크 맥그레거 컨트리클럽 골프코스에서 24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 20회 월레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당년 86세의 이규용 박사(41년 졸업)가 그로스 98타를 쳐서 일등상을 탔으며 2등에는 김익성 동문, 3등에는 한창섭 동문, 그리고 메달리스트에는 정도현동문이 각각 차지하였다.

골든클럽 총무인 임호순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동클럽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회원중 7월과 8월에 생일이 있는 임석태동문 (52년졸 법대), 윤정옥동문 (54년졸 약대), 고석원동문 (54년졸 문리대) 및 김병수동문 (55년입상대) 등 4명의 회원을 위한 생일 축하 파티를 열고 생일축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서울대학교동문으로 60세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골든클럽은 3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친목을 위한 골프모임을 갖는데 9월에는 28일에 뉴욕주에 있는 Central Valley 골프코스에서 부부동반으로 21회 대회를 갖는다.

(투고자 한창섭 차기회장)

탈북난민 돕기 자선 음악회에 김성지 · 서병선 동문 출연



서병선 동문

서병선 동문(음대 65년 입학)이 회장으로 있는 뉴욕예술가곡연구회(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는 탈북동포를 돕기위한 성가와 가곡의 밤을 9월 30일(일) 저녁 7시에 뉴욕효신장로교회 (42-15 166소 St. Flushing, NY)에서 개최한다.

동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성지(음대)동문의 7인의 성악가가 독창 및 중창을 하고, 헨리김 동문(미대)이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았다.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Presents

탈북난민돕기 모금 음악회

Benefit Song Concer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성가와 가곡의 밤 - 독창과 중창

피아노 : 김해원

기쁨 되시는 예수, 거룩, 기도, 사랑은 선행없네, 문 열어주소서, 오 찬미하이라, 내맘의 강물, 눈, 가고파, 그리움, 그대 있음에, 그리운 금강산, 저구를 흘러가는 곳, 슬베이지의 노래

SCHUBERT, HANDEL, GOUNOD, GRIEG, KOREAN SONGS

| | | | |
|---|--|---------------------------------------|-------------------------------------|
| 소프라노 박숙형 Soprano Sook Hyung Park | 소프라노 봉승희 Soprano Seung Hee Bang | 소프라노 이철화 Soprano Chul Wha Lee | 소프라노 김성지 Soprano Sung Ji Kim |
| 테너 이재광 Tenor Jaeg Woo Lee | 바리톤 송현상 Baritone Hyun Sang Song | 바리톤 이영주 Baritone Young Joo Lee | 테너 서병선 Tenor Byung Sun Shih |

DATE: SUNDAY, SEPTEMBER 30, 2001 at 7:00 PM
 PLACE: 뉴욕효신장로교회 (방직각 목사사무) HYO SHIN CHURCH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 Tel. 718.762.5756
 주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주관: 탈북난민인권보호협의회 (회장 유전중 목사)
 후원: 뉴욕효신장로교회, 보성중·고등학교뉴욕동문회, 스토니부룩한인학생회, 선데이한국, KOREAN MARKET NEWS·버룩시장, 경동한의원
 행사준비위원장: 헨리 김

뜻있는 동문들의 참석과 성원을 바란다. (연락처: 718-762-5776) (투고자 서병선 동문 212-567-6919)

Young Professionals Party

11월 18일 저녁6시, Palisadium Restaurant

2세대를 위한 Young Professional Party가 11월 18일 뉴저지 Cliffside Park에 있는 Palisadium Restaurant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의대 뉴욕 지부 동창회는 같은 날, 같은 식당 MAIN HALL에서 연말 파티를 가질 예정이니, 다른 지부의 동문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파티에서 동문들을 만나는 기쁨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부모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급게 성장해온 우리2세대들에게 이제는 좋은 친구/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Young Professional Party

에 참석했다고 해서, 백마 탄 왕자나 선화공주 같은 규수를 단번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친구 뿐 아니라 미국인 친구조차 만날 시간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함춘회원 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할 거예요. 제가 만약 미국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집안이 서로 자주 왕래해야 할텐데, 같은 자리에 모일 때마다 영어로 대화를 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실 엄마 아빠가 눈에 선하네요. 차마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극한 효녀입니다)

미국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집

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 아무리 처음에는 좋다고 해도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될테니 그것도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한국인 배필을 만난다는 것이 외국인 배필을 만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한 지혜로운 옛말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정신연령, 같은 교육배경과 취미, 같은 종교와 종족의 남녀들끼리 만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의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호응이 좋으면 이런 모임을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일 등록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미리 등록해 주면 주최측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 오기가 쑥스럽게 생각되면, 주위의 사촌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참석하기 바랍니다. <함춘회 회장>

Young Professionals Party등록서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Remarks

Payable to Ham Choon Club:\$ 45
보내실 곳: Mrs. Young Chul Kim
10 Takolusa Dr.,
Holmdel, NJ 07733

예약하실때 파티장 가까이 있는 호텔 :

- Best Western Fort Lee 201-461-7000
- Fort Lee Hilton 201-462-9000
- The Glenpoint Marriot 201-836-0600
- Holiday Inn 201-944-5000
- Radisson Hotel Englewood 201-871-2020

수의과대학 동문동정

수의대 이흥식 신임 학장 초청

미 동부 수의대 동창회(회장 김문소)은 올해 사업의 일환으로 모교의 수의과 대학의 신임 이흥식 학장(65졸)을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모교 세계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미국 수의학 현황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7월8일 보스톤에 도착하여 김문소 회장(65졸)의 안내를 Tuft수의대를 공식 방문하고, 다음은cornell 대 수의대 교수이신 신상재(63졸)동문의 안내로 CORNELL 대학 수의과 대학을 공식방문 Smith 학장과 면담하여 동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합의했다. 7월11일은 필라델피아에서 U.P수의과 대학을 방문하고 Philadelphia의 늘용식당에서 수의과 동문 간담회를 가졌다.

조길현동문(64졸)의 안내로 Washington D.C.를 돌아보고 7

월14일 귀국하였다. 수의대 동문들이 많은 필라델피아의 동문 간담회에서는 Canada Gulph 수의대의 유동완교수 Harrisburgh의 김현영 박사가 멀리서 특별히 일정을 잡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정화 박사(Penn 대학 수의대 생화학교수이며 소설가 춘원 李光洙씨 영애이며 이번에 모교 외래 생화학 교수로 임명되었음)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李학장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발전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동문들에게 학생들의 자질 향상을 도와주고, 초청교수제도에 참여하여 줄 것과, 모교 교수의 미국체제 연구시 체제비 지원등을 부탁하였다.

New Jersey 에서 은퇴한 김진수(60졸) 동문은 그 동안 모아 두었던 병리학 slide와 개업시에 쓰

던 X-ray 기재를 이 자리에서 모교에 기증하였다.

재미 수의대 동문회는 그동안 10여년전부터 신임 학장 공식초청, 미주 수의학 교육을 시찰하도록 도왔고,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미주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 동부지부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lumni association, Eastern U.S. Chapter) 주소는 1098 Main Street, Tewksbury, MA 01876 , ☎ 978-851-3626, 215-745-9030 , fax 978-851-6408, 215-745-3055 이다. 그 동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Dr. Moon So Kim (President), Dr. Gregory K. Joo (General Secretary) , Dr. Hyun Young Kim (Auditor). (투고자, 주기목 동문)



수의대 동문들 뒷줄좌측부터 이병인(69입), 민흥식(60입), 지흥민(61입), 전무식(61입), 김현영(58입), 노병의(61입), 유동완(68입) 앞줄 좌측부터 이성배(59입), 강영배(59입), 이흥식(61입), 오연각(53입), 김진수(56입), 조정현(58입), 주기목(68입)



수의사 부인들 뒷줄좌측부터. Mrs. 민흥식, 이성배, 조정현, 강영배, 김현영, 이정화교수(모교 외대 생화학 교수), 이흥식, 주기목



보스톤에 계셔서 참석 못하신 김문소 회장님을 대신하여 김현영감사께서 이흥식 학장께 선물을 증정함.

수의대 자랑스러운 동문상 신설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7월 5일 서울 사당동 소재 「대웅수산」에서 金東勳, 鄭英彩, 申鉉一, 林永一, 金振球, 白文英부회장, 朴根植 감사, 金善中이사, 禹希宗, 尹汝成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 및 장학재단 이사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동창회 홈페이지(www.vetalumni.co.kr)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각 기별 및 직장 지부 명단을 포함한 2001년도 명부를 새로 제작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시상하기로 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재미 동창회에 대한 자세한 근황소개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가진 이사회에서 모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기금을 추가로 모금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동창회보 전재>

필라델피아지역 소식

‘필라春秋’

필라동창회 동문 문집 간행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회장: 강영배)는 동문들의 글을 모은 문집(文集) 필라춘추 2001년(발행인: 한혜원동문, 직전회장, 94면)을 발행하였다.

여기에는 18개의 동문들이 쓴 다양한 내용의 글들을 실고 있으며, 회원 주소록과 역대 회장단의 명단과 회칙을 담고 있다.

이문집에 실린 동문들의 글의 제목을 여기에 소개한다. 재미동창회보의 제2부인 文筆과 論考는, 매호의 특성에 따라서 동문들의 글을 저자에 허락을 얻어 앞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 문집을 발간한 필라델피아 지

역동창회에 재미 총동창회는 축하를 드립니다.

< 문집 내용 목차 >

- 1) 고 임덕상 회장을 그리며.... 임광상(공대 57졸), 2) 서울대학 울타리 안에서... 윤정나(음대 63졸), 3) 먼 훗날... 정규병(공대 82졸), 4) 은퇴를 위한 준비과정... 김태옥(문리대 62졸), 5) 중국여행에서... 김일훈(의대 57졸), 6) How To Prevent A Heart Attack ... 정구영(의대 57졸), 7) 러시아 서민 음악의 기수... 한수웅(의대 61졸), 8) 경제통계로 본 북한 경제의 실상... 전방남(상대 77졸), 9) 유산 상속

- 계획... 윤경숙(문리대 63졸), 10) 서울의대 Minority 여학생 시절... 한혜원(의대 61졸), 11) 나 오미와 톳의 이야기... 김경화(사대 60졸), 12) The Kreutzer Sonata... 김경태(의대 55졸), 13) 새 안경... 이명숙(의대 61졸), 14) 번역문제에서 노벨상까지... 김일훈(의대 57졸), 15) 조선오이... 정정수(의대 62졸), 16) 자유... 박경선(사대 62졸), 17)간염과 간암의 최신 지견... 한혜원(의대 61졸), 18) 잘츠부르크에서 뮌헨에 이르기까지... 한수웅(의대 61졸)

<투고자, 주기목 동문>

서울 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or.kr>

모교소식

중문과 전현직 교수 12명 장학기금 1억5천만원 출연

모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전현직 교수 12명이 지난 7월 25일 그 동안 교재관매비 인쇄비 등을 적립해 마련한 1억5천만원을 중문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이 기금은 올 2학기부터 매년 학기당 1천만원씩 연 2천만원을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은 지난

1980년 초 지금은 정년퇴임한 **崔完植, 金時俊**교수가 학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푼푼이 돈을 모으자는 의견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李炳漢·金學主**명예교수를 비롯해 **許成道·徐敬浩·宋龍準·吳洙亨·柳種睦·全炯俊·李永朱·李康齋**교수 등이 동참하고, 학과장 명의로 통장이 대물림되면서 10만원에서부

터 많게는 백만원 단위까지 돈이 쌓였다.

宋龍準학과장은 『인문학 위기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요즘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마저 침체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올 4월 기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교수들의 합의를 거쳤고, 8월 중순부터 학기당 6~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어중문학과 교수들은 지난 7월 23일 주소가 파악된 중어중문학과 6백여 동문에게 편지와 e-메일을 보내 장학금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6월 22일 제9회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코트렐 **李達雨**(53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과 대덕전자 **金貞植**(56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국내 부문, 버지니아 주립대학 **尹汝煥**(67년 工大卒)교수와 벨연구소 **陳成浩**(69년 工大卒)연구원이 해외 부문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李達雨 동문



金貞植 동문

모교 李鍾一-TEST사업본부장

“기존 시험과 달리 실용영어 중시”



최근 모교 TEPS사업본부장에 선임된 **李鍾一**(75년 文理大卒)동문을 만나 모교가 자체 개발한 영어검정능력시험인 TEPS에 관한 소개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모교 졸업 후 지금까지 영문학 연구와 교육에 몸담아왔으며, 지난 98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모교 어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조선일보가

그 동안 담당해오던 TEPS사업이 모교로 이전되면서 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TEPS에 미력하나마 관여해왔지만,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니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또한 부족한 부분은 열성으로 채워가면서 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쏟을 예정입니다.』

—「TEP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인 TEPS는 모교 어학연구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해온 영어능력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학습의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어 개발한 영어능력검정시험입니다. 특히 학구성과 실용성을 겸비,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청해, 문법, 대화 및 독해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2시간 20분 동안 2백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또한 기계적인 암기나

일정한 문제유형을 단기간에 숙달함으로써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실용영어의 활용능력을 중시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TEPS는 문항반응이론(IRT)을 도입, 수험자의 영어실력을 아홉 단계로 구분해 변별력을 높게 측정하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TEPS만의 장점이나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시험의 경우 그 내용이 지나치게 미국적이며, 학문적인 방면에 너무 편향되어 있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보편적인 시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시험의 경우, 비즈니스 분야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채택하기에는 실상 적절치 못한 시험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너무 쉬운 데다 오랜 동안 동일한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다보니 그 유형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백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실생활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TEPS는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영어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보편성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유난히 어렵게 여기거나 잘못 사용하기 쉬운 내용들을 고려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적절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PS 사업부의 향후 계획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자국에서 개발한 시험인 STEP, CET가 단연 독보적인 시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TEPS는 한국 영어의 발달이라는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은 한국 영어의 발달과 교육 진흥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TEPS는 이제 시행된 지 겨우 2년 남짓 된 걸음마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머지 않은 시기에 문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급률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평가를 받는 시험으로 정착, 한국의 영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表)

포스코IB

18일까지 시범운영

모교 관악캠퍼스 스포츠센터인 포스코IB(관장 趙信燮)가 오는 9월 1일 개관을 앞두고, 7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장, 스쿼시/라켓볼장의 일일입장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입장별로는 시범강습(헬스, 수영, 스쿼시/라켓볼, 에어로빅 등)을 할 예정이다.

박물관

신소장품 특별전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오는 9월 8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신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최근 10년간 새로 소장한 유물들로서 고고역사, 전통미술, 인류민속, 현대미술 등으로 나뉘어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전시한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새로운 會報를 기다립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 | | | | |
|------------|----------|------|----------|----------------|---|
| 고 문 | 박윤수(朴允洙) | 사무총장 | 구경희(具瓊會) | <전국평의회> | 의원 66명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용학, 김기태 각지역 회장, 차기회장, 선출직의 명단은 지역동창회란 참조) |
| | 강수상(姜洙祥) | 총무국장 | 김정주(金正周) | <인선위원회> |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오홍조 |
| | 이병준(李丙俊) | 재무국장 | 김현옥(金賢玉) | <편집위원회> | 오홍조, 방석훈, 이재덕, 이진구, 백 순, 박경민, 소진문, 구경희(총무) |
| 명예회장 | 오인석(吳仁錫) | 출판국장 | 정 호(丁 浩) | <종신이사> | 이병준, 이세열, 박병기, 이기영, 이진구, 정 태, 강영빈, 박경민, 오홍조 |
| 6대 회장 | 이용락(李龍洛) | 섭외국장 | 장기남(張基南) | | 심상은, 오인석, 이청광, 이교락, 윤선홍, 서영석, 방은호 |
| 수석부회장 | 오홍조(吳興祚) | 감 사 | 박영규(朴泳圭) | <백만불기금위원회> | 방은호, 윤정옥, 이병준, 오인석(위원장), 김병수, 임낙균, 이용락(총동창회장) |
| 미주관악후원회부회장 | 송순영(宋舜英) | | 김재영 | <기타지역 백만불기금회원> | 이희백, 한광수 |

동 정

수 상

▲洪性裕(48년 法大入·소설가)
=오는 9월 5일 예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문학 부문)을 수상한다.

▲皇甫漢(60년 工大卒·한국통신 위성운용단장)=오는 8월 29일 항공우주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항공우주학회(AIAA)의 2001년 폰브라운 상을 수상한다.

▲朴永寬(64년 醫大卒·부천세종병원 이사장·한국어린이보호재단 이사장)=지난 7월 6일 열린 제3회 범죄예방방지원봉사 한마음대회에서 2001년 범죄예방방지원봉사상 특별상을 받음.

▲朱光逸(65년 法大卒·前국민고층처리위원장·제일국제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지난 6월 14일 국민고층처리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월 16일 세계적 가치공학(VE) 전문 단체인 세이브 인터내셔널의 브루스 렌저 회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음.

▲鄭喜成(68년 文理大卒·시인)
=최근 창작과 비평사가 제정한 제16회 卍海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余琮琪(70년 工大卒·LG화학 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1~6일 호주에서 열린 세계화학총회(WCC) 산하 아시아 화학연합기구(FACS) 총회에서 「경제발전 공로상」을 받음.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최근 이슈투데이 사이트 트오픈 1주년 기념으로 전문가·칼럼니스트에게 수여하는 「베스트 칼럼상(사회분야)」를 수상함.

▲李鍾郁(71년 藥大卒·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생명화학분야)을 받음.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지난 7월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제3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함.

▲尹順寧(73년 看護大卒·모교간호학과 교수)=지난 7월 4일 제3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서 근로자 건강보호와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음.

▲金亨郁(74년 工大卒·현대자동차 실장)=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에너지환경분야)을 받음.

▲李秉基(74년 工大卒·모교연구처장)=오는 9월 17일 학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 부문)을 수상

한다.
▲黃健豪(74년 商大卒·메리츠증권 사장)=지난 7월 5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경영생 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생산성 향상 유공자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朴聖會(75년 醫大卒·모교병리학교실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 문)을 수상한다.

▲李侑載(82년 經營大卒·모교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분야 장려상을 받음.

이동·선임

▲張明珠(56년 工大卒·우석대 총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7월 2일 하얏트호텔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에 취임함.

▲成贊慶(57년 文理大卒·시인)=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金洛斗(57년 藥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黃仁政(58년 文理大卒·강원발전연구원장)=최근 열린 전국 시·도연구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本報 論說委員)=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朴世直(60년 文理大卒·前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장)=지난 7월 10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됨.

▲申世吉(61년 商大卒·前삼성

유럽본사 사장)=지난 7월 9일 야후코리아 경영고문에 위촉됨.

▲李台燮(62년 工大卒·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6일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 제84차 총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국제 제2부총재에 선출됨. 1년 뒤에 제1부총재, 2003년에 세계총재에 추대될 예정임.

▲金昌國(58년 法大入·前대한변협 회장)=오는 11월 1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李時伯(62년 獸醫大卒·모교보건학과 교수·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지난 7월 21일 국제가족계획연맹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이사회에서 의장에 선출됨.

▲盧五鉉(63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www.snua.or.kr

서울대총동창회 Web Site를 보완하고 Upgrade시켜 재개통 하였습니다.

Off-Line에서의 만남과 On-Line에서의 만남을 통해 동문 간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모교 발전에 熱과 誠을 한데로 모아 나갑시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새로운 會報를 기다립니다.

달라스 지역 동창회

회 장 : 최근자
평 의 원 : 김옥균

<백만불 기금회원>
김인호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김옥균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郭秀一(63년 商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朴元勳(64년 工大卒·KIST 책임연구원)=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趙源永(64년 文理大卒·前과이년설뉴스 대표)=최근 한국

산업도면 전산화 진흥협회 회장에 취임함.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대한화학회장)=지난 7월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 총회에서 고분자분과회 부회장에 선임됨.

▲徐大錫(65년 文理大卒·모교국어국문학과 교수)=최근 내년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국어국문학회 제33대 대표이사에 취임함.

▲劉承三(65년 文理大卒·중앙일보 출판M&B 대표)=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논설고문에 선임됨.

▲姜光(65년 美大卒·인천대 교수)=지난 7월 18일 인천대 부총장에 선임됨.

▲鄭泰翼(65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7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7월 24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유도연맹(IJF) 총회에서 4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임됨.

▲池龍熙(65년 商大卒·서강대 교수)=지난 7월 10일 개최된 한국벤처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朱德永(66년 工大卒·기술표준위원장)=지난 7월 2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金榮培(6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출판M&B 대표이사 사장 겸 세계를 간다(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富植(66년 文理大卒·前과학기술부 차관)=지난 7월 2일 교통개발연구원 제8대 원장에 선임됨.

▲崔圭徹(66년 法大卒·동아일보 편집국장)=지난 7월 10일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宋哲鎬(67년 文理大卒·前제일보 대표)=최근 충남 홍성 청운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선임됨.

▲李明煥(67년 商大卒·前효성생활산업 대표)=지난 7월 2일(주)동부 사장에 선임됨.

▲尹柱秀(68년 工大卒·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鄭熙周(68년 農大卒·前대우상용차 대표)=지난 7월 9일 호텔정보화기업(주)루넷 회장에 선임됨.

▲趙源玖(68년 商大卒·前한국내화 대표)=지난 7월 2일(주)동부 부사장에 선임됨.

▲崔嘉鉉(69년 工大卒·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7월 2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2대 원장에 선임됨.

▲崔協(69년 文理大卒·전남대 교수)=최근 영남대에서 열린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임기 2년

의 차기 회장에 선출됨.
▲張基澤(69년 法大卒·前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최근 싱가포르 CDL(서울힐튼호텔의 모회사) 이사회에서 CDL코리아 부사장에 선임됨.

▲金鍾兌(69년 師大卒·前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지난 7월 10일 한진해운 기획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沈潤相(69년 醫大卒·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지난 7월 5일 원자력병원 제7대 병원장에 취임함.

▲宋永吾(70년 文理大卒·駐스리랑카 대사)=지난 7월 14일 외교통상부 의전장에 임명됨.

▲柳洲烈(70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총무과장)=지난 7월 24일 駐나고야 총영사에 임명됨.

▲李孟基(70년 法大卒·前국세심판원 조사관)=지난 6월 29일 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에 선임됨.

▲盧鈺燮(70년 師大卒·감사원 제1사무차장)=지난 7월 17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됨.

▲閔相基(70년 商大卒·모교 대학원장)=지난 7월 3일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선임됨.

▲李寅源(70년 新大院卒·前문화일보 부사장)=지난 7월 12일 열린 한국대학신문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孫承泰(71년 工大卒·감사원 기획관리실장)=지난 7월 17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임명됨.

가야금 명인 黃秉冀동문

창작활동 40년 결산 음반 선보여



가야금 명인이자 창작국악의 거봉 黃秉冀(59년 法大卒)동문이 최근 창작활동 40년을 결산하는 5종의 음반(C

&L 뮤직)을 선보였다. 「침향무」, 「비단길」, 「미궁」, 「춘설」 등 기존 음반을 선명한 음질로 리마스터링한

4종과 국내에 첫 발매되는 초기연주집 「가야금」 등이다.

「가야금」은 국악음반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출시됐던 앨범. 1965년 하와이에서 녹음돼 미국에서만 판매된 것으로 당시 20대 후반이던 黃동문의 힘이 넘치는 연주가 담겨 있다.

이번에 나온 음반들은 黃동문의 예술성에 걸맞게 수출용 고급판형으로 제작됐다. 黃동문의 음악세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한국어, 영어, 불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실은 소형책자도 덧붙였다.

8월말에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黃동문은 서울 90승년 통일음악회 집행위원장, 국악의 해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문화예술인 클럽 회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雙>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하와이 지역 동창회

회 장: 정재훈 평의원: 구해근

<백만불 기금회원>

<2000. 7. 1 ~ 200.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2000.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閔陽基(71년 醫大卒·모교 이 비인 후과학교 실 교수)=최근 러시아 야로 슬라블에서 개최된 국제 비염 감염 및 알레르기 학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東晉(72년 工大卒·현대 상용차 부문 사장)=지난 7월 24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鄭聖立(72년 工大卒·대우조선 전무)=지난 7월 27일 대우조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文昌克(72년 文理大卒·중앙일보 국장)=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회장비서실장 겸 전략기획담당 이사에 선임됨.

▲沈基昌(72년 文理大卒·내과 전문의)=지난 7월 2일 시카고 제25대 한인회 이사장에 선임됨.

▲白文圭(72년 法大卒·의료보험연합회 경기지부장)=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실장에 선임됨.

▲鄭輝泳(73년 農大卒·감사원 사무총장)=지난 7월 17일 감

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됨.
▲全聖喆(73년 文理大卒·세종대 세계경영대학원장)=지난 7월 11일 세종대 부총장에 취임함.

▲趙誠勇(73년 文理大卒·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금호사무소 대표)=지난 7월 24일 駐후쿠오카 총영사에 임명됨.

▲金相甲(73년 法大卒·前HSD·엔진 전무)=지난 7월 11일 두산중공업 영업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부부장(부사장)에 선임됨.

▲李鍾九(73년 商大卒·재정부 장관 특별보좌관)=지난 7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됨.

▲李相天(74년 工大卒·영남대 총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洪宗崎(74년 文理大卒·통상교섭본부 뉴라운담당 심의관)=지난 7월 24일 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사에 임명됨.

▲辛正承(75년 文理大卒·駐중국 공사)=지난 7월 14일 외교통상부 공보관에 임명됨.

▲趙建植(75년 文理大卒·통일

부 교류협력국장)=지난 7월 1일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에 임명됨.

▲李啓安(75년 商大卒·현대자동차 사장)=지난 7월 24일 현대캐피탈 회장에 선임됨.

▲梁峯烈(76년 社會大卒·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지난 7월 24일 駐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됨.

▲崔忠柱(77년 社會大卒·駐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지난 7월 24일 駐벨기에 EU 공사에 임명됨.

▲金殷相(78년 經營大卒·前모건스탠리 한국지점장)=지난 7월 2일 살로먼스미스바니 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됨.
▲鮮于鍾聲(79년 工大卒·前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지난 7월 4일 한국정보인증 기술연구소장에 선임됨.

▲康錦實(79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촉됨.

▲金 鉉(81년 工大卒·맥스텔레콤 부사장)=지난 7월 1일 맥스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됨.
▲韓榮喆(81년 工大卒·前대우자동차 상무)=지난 7월 18일 스웨덴 볼보 트럭의 한국법인인(주)볼보트럭코리아 사장에 선임

됨.
▲裴佑根(81년 環大院卒·한양대 교수)=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위촉됨.

▲李錫兌(82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위촉됨.

▲具暎會(82년 醫大卒·경상대 교수)=최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정형외과학술지인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의 고관절 무혈성괴사분야 심사위원에 위촉됨.

▲成素美(83년 社會大卒·KDI 기업정책팀 연구위원)=지난 7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정책팀장에 선임됨.

▲張興淳(44기 AMP·벤처기업 협회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朴成得(20기 ACAD·前정보통신부 차관)=지난 7월 4일 선박항해통신장비 분야의 전문 제조회사인 사라콤의 고문에 취임함.

▲張基哲(33기 ACAD·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지난 7월 26일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6개 시·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중앙회장에 취임함.

행사·출간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전문화재단 이사장)=최근 성천아카데미 개교 10주년을 맞아 2001년 추계강좌부터 회원에 가입하면 전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회원자유수강제를 실시함.

▲鄭瑢載(50년 文理大卒·前이화여대 교수)=지난 6월 22일 이화여대 경영관에서 과학교육과동창회 주최로 저서 「여로와 여정 그리고 나의 삶」 출간기념회를 가짐.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 회장)=지난 7월 21~24일 루마니아 IASI UNIREA 호텔에서 제3차 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의를 개최함.

▲盧隆熙(52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정주장학회 이사장)=지난 7월 21일 경기 연천군 전곡에서 아이리시회원(장학금수혜자)의 하계수련대회와 제19회 교양강좌를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 문화시민중앙협의회 회장)=8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백38개 시·군을 순회하는 「월드컵 D-300 전국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權純福(56년 法大卒·지방행정연구소 이사장)=지난 7월 2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자치 실현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지난 6월 2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시에서 열린 의대미주동창회 여름 학술대회에 참석, 국내외 재미 의료인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강조하는 내용의 개막인사를 함. 또 지난 7월 25일 대전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육군본부와 學·軍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함.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문학인회 고문·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지난 7월 12일 중구 예

장동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작공식을 가짐.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세계태권도문화축제 2001 대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기념리셉션을 개최했으며,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축하음악회를 가짐.

▲裴榮漢(58년 商大卒·초록배 미디어 명예회장)=지난 6월 23~28일 6.25 전쟁 참전 5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를 다녀옴.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장)=지난 7월 3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의료분쟁조정

대한 특강을 실시함.
▲崔昌圭(62년 文理大卒·성균관장·새천년종교인 윤리 평화총연합 대표의장)=지난 7월 27일 한국 언론재단에서 제2회 종교인 윤리현장 실천을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가짐.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7월 9~12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50개국 현지 한인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1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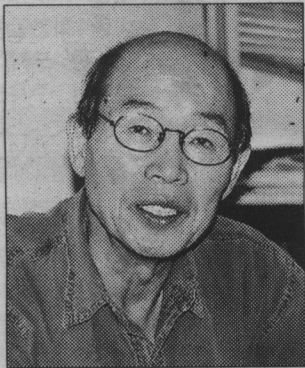
▲李容環(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7월 26일 제주도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2001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서머스쿨」에 연사로 참석, 「모바일 비즈니스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 복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지난 7월 19일 충북 충주 농협공제 연구원에서 「농업경제학 발전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모교 동양화과 鄭暉永교수

독일서 세번째 개인전 가져 英 킹스턴大서 작품전 예정



모교 미대 동양화과 鄭暉永(60년 美大卒)교수(사진)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예약당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駐독일 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전시회에서 鄭 교수는 최근 수묵화 작품 18점을 선보였으며, 26일에는 독일 문화계 인사 및 한국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표현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소박성, 여백의 미, 겸양의 미덕, 해학성과 유희의 표출 등 한국미술에 나타난 특성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지적하고,

중국과 일본의 표현세계를 비교 분석했다. 또 질박하고 단아하며, 人力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天人地合一로 이뤄놓은 한국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농경민의 敬天思想을 설명했다.

강연회와 동시에 시연회를 갖고, 參禪과 冥想을 통한 신비의 정신과 餘技생활로부터 발전한 文人畫 정신과 표현기법을 선보여 참석자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鄭 교수는 독일 전시회를 마친 후 동아시아박물관 Veit관장으로 부터 차후 개인전 초청 제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鄭 교수는 오는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駐英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킹스턴大 전시관에서 작품전과 강연을 펼친 예정이다.

鄭 교수의 이번 전시회가 한국 미술에 관한 국제적 새로운 인식과 호응을 얻어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오는 2003년 8월에 정년 퇴임하는 鄭 교수는 앞으로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造景 작품을 남기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變)

개최함.

▲李哲雨 (65년 農大卒·롯데리아 대표)=최근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한국홍보 사절단 출정식을 갖고, 오는 8월 22일까지 유럽 6개국을 돌며 홍보활동을 펼친다.

▲趙政男 (67년 工大卒·SK텔레콤 부회장)=지난 7월 27일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성금 1억 4천만원을 전달함.

▲朴哲圭 (67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대한성형외과회 회장)=최근 2002년 4월 24~26일 서울에서 제6차 한·일 성형외과학회를 개최기로 결정함.

▲朴容眩 (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7월 26일 전남 여수에 있는 성심종합병원과 진료·의료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협약을 체결함.

▲鄭煥坤 (68년 保大院卒·송원대 교수·美뉴욕과학 학술원 회원)=최근 미국 머큐스 출판재단이 발행한 세계인명전기연감(제18집, 제19집)과 세계과학기술인명전기연감(제6집)에 등재됨

▲李永來 (70년 農大卒·한국4-H본부 회장)=지난 7월 25~28일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회원과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 활동을 실시함.

▲朴虎君 (70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12일 동덕여대 趙元英총장과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관련 장비 교환, 공동연구과제 도출 등을 골자로 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

▲張明奉 (72년 法大卒·국민대 북한법제연구사업팀장)=지난 8월 2일 연변대에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관련 법제 동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짐.

▲李範浩 (74년 農大卒·도드람유통 사장)=최근 도드람유통에

서 생산하는 도드람포크가 KS마크 인증을 획득함.

▲張鉉明 (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 교수)=최근 국제세라믹스 평의회(ICC)가 선정한 「세계대표 과학자 32인」으로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됨.

▲全泰源 (79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지난 7월 6~8일 모교에서 「아시아·환태평양 운동과 스포츠 과학회」장립총회와 학술대회를 가짐.

▲崔焘東 (79년 醫大卒·김포병원장·김포시의사회장)=지난 7월 10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국장급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에 대해 특강함.

▲李珉柱 (80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화가)=지난 7월 25~3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共鳴: 아버지를 통한 나의

아니무스(Animus: 남성상) 발견」을 주제로 제16회 개인전을 가짐.

▲申熙泳 (80년 醫大卒·모교 병원 어린이병원학교장)=지난 7월 13일 모교 병원 어린이병원 7층 어린이병원학교에서 개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尹榮和 (80년 音大卒·백제예대 교수)=지난 7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슈베르트의 「소나타 Bb장조 D960」 등을 선보임.

▲李忠範 (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지난 7월 16일 베트남 호치민시 투덕지구 「베·한 정해기술학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함. 「베·한 정해기술학교」는 지난 1996년 11월 베트남 내 한인 2세 및 불우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설립됨.

▲陳銀淑 (85년 音大卒·작곡가)=지난 7월 3일 독일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초빙작곡가에 선임됨.

▲申惠晶 (86년 音大卒·피아니



스트)=지난 7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라모, 베토벤, 슈만, 코플랜드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李庸中 (93년 行大院卒)=지난 6월 7일 네덜란드 Erasmus대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법학박사 학위(국제법)



를 받음. ▲趙亮鎬 (29기 AMP·대한항공 회장·21세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지난 7월 11일 서소문 KAL빌딩에서 서울·인천·



제주지역의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90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씩을 전달함. ▲金澈運 (33기 AMP·충효에실천운동본부 총재)=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충효에실천문화시민운동

결의대회를 가짐. ▲朴源弘 (40기 AMP·국회의원)=지난 7월 9~18일 美의회 초청으로 한미의원외교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후 美국무성·국방성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함.



▲李琪鍾 (43기 AMP·두리비전 대표)=최근 영사기 주사속도를 4배 높여 대형 화면일수록 잘 드러나 보이던 주사선

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스캔라인 쿼드러플(Scan Line Quadruple)을 개발함.

▲河成瀾 (45기 AMP·서울팝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지난 7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장단 13주년 기념 음악회」를 가짐.

▲禹旻仙 (1기 SGS·신안건설산업 회장·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도시환경교위정책과정 동창 회장)=지난 6월 28일 여의도 주택회관에서 「2001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 전달 기념식」을 개최함.



▲朴尙東 (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보건 의료정책 최고 관리자과정 동창 회장)=지난 7월 6일 경희대 법무대학원

세미나에서 「성인병 예방과 식생활」이란 주제로 강연했으며, 14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함.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이름 수 없는 誓願

—孫章純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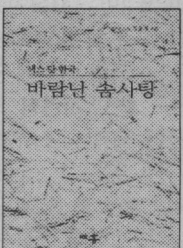


한양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한 원로작가 孫章純 (58년 文理大卒) 동문의 칼럼집.

여성문학과 페미니즘의 차이,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자, 정치 문화와 언론과의 함수관계, 정치인들의 보상 의식 등 문학, 문화, 정치분야의 글과 더불어 자전적 에세이 등 80여 편을 담았다. (도서출판 문화공간·값12,000원)

바람난 습사탕

—鄭東哲 著



한국임상성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鄭東哲(60년 醫大卒·정동철 신경정신과 원장)동문이 상담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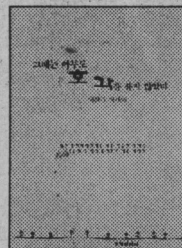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비아그라 인생」을 비롯해 1백

여 편의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성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퍼냄출판·값13,000원)

그때는 아무도

호각을 불지 않았다

—李彰國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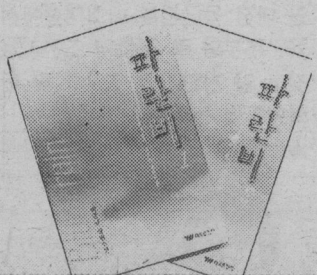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인 李彰國 (64년 師大卒·한국밀턴학회 회장)동문의 두 번째 수필집.

첫 수필집 「다시 한번 강가에 서다」에 수록되지 못했던 글과 새로 쓴 몇 편의 글을 모아 엮었다. 「공휴일 출근자」, 「정년퇴직」, 「늙기의 어려움」 등과 같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36편을 수록했다. 또한 감성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글도 여러 편을 실었다. (드림미디어·값7,800원)

파란비 1·2

—朴鍾圭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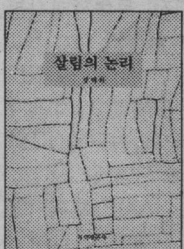
종합광고기획사인 폴리곤 커

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고 있는 朴鍾圭(73년 美大卒·경인여대 컴퓨터정보디자인학부 겸임교수)동문이 「주암마을」에 이어 두 번째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운동권 여인으로 잘못 오인돼 처참한 죽임을 당한 김세희라는 여대생이 23년이 지난 오늘에 나타나, 김영준이라는 옛 연인의 의식을 조정해 그녀의 한 풀이를 해나가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태웅출판사·각권 값 7,500원)

살림의 논리

—張宅熙 著



한국철도차량(주) 생산기술팀 차장인 張宅熙 (83년 工大卒) 동문이 살림(죽음의 반대)운동을 벌이며, 여러 잡지에 발표해온 글을 모아 묶은 것.

쓰레기는 없다, 덜 쓰고 덜 버리며 사는 기쁨, 바르게 먹으면 세상의 병이 낫는다, 생태적 위기의 인식과 원불교 환경운동의 방향 모색, 먹는 것에 대한 잡념, 풋내기 살림꾼의 기도 등을 담았다. (녹색평론사·값7,000원)

100억 연봉 CEO

—曹永卓 著

금호그룹에서 구매, 영업, 기



획, 회계 등의 계열사업과 그룹의 미래기획단, 회장부속실 기획조정팀 근무를 통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지닌 曹永卓(89년 經營大卒·휴넷 대표이사)동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기술했다.

부록으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권하는 101권의 책 목록을 첨부했다. (휴넷·값 10,000원)

神은 다시

손을 잡아주셨다

—서울사대여자기독교동문모임



모교 사범대학 여자기독교동문회 회원인 趙義淑, 金蕙卿, 李相姬, 崔淑姬, 高蕙蘭, 金榮義, 金鍾順, 金海玉, 曹恩淑, 李貞姬, 崔芳枝동문 등이 6~7년에 걸쳐 모은 6·25전쟁 이야기집. 한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처참했던 전쟁에 대해 실제 경험한 세대의 증언으로 꾸며졌다. (비매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8월16일 ~ 9월27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 윤정옥 (뉴욕. 약 50입)
- 김영덕 (뉴욕.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상 55입)
- 김병수 (뉴욕. 상 55입)
- 최수용 (뉴욕. 상 55입)
- 유창남 (뉴욕. 의 58입)
- 오인석 (뉴욕. 법 58입)
- 이전구 (뉴욕.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 임춘수 (의대 57입) \$ 200
- 변우진 (인문대 81입) \$ 1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01 | 남가주(CA) | 정인환(200)권길상(100) | 2 | 300 |
| 03 | 샌프란시스코 | | | |
| 04 | 뉴욕(NY, NJ, PA 일부, CT) | | |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 3 | 1,500 |
| 06 | 워싱턴 DC(MD, VA) | 방은호(5,000) 이규섭(150) | 2 | 5,150 |
| 07 | 워싱턴주(WA) | | | |
| 08 | 휴스턴(HOUSTON, TX) | | | |
| 09 | 달라스(DALLAS, TX) | | | |
| 10 | 미네소타(MN) | 변우진(100) | 1 | 100 |
| 11 | 조지아(GA) | | | |
| 12 | 아리조나(AZ) | | | |
| 13 | 유타(UT) | | | |
| 14 | 하와이(HI) | | | |
| 15 | 오레곤(OR) | | | |
| 16 | 기타(서부) | | | |
| 17 | 기타(중부) | | | |
| 18 | 기타(동부&캐나다) | | | |
| 19 |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 | 정정수(500) | 1 | 500 |
| 20 | 뉴잉글랜드(MA) | | | |
| 21 | 하트랜드 | | | |
| 22 | 펜실바니아 | | | |
| | 총 계 | | 9 | 7,550 |

약정하신 동문들

|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현금 약정 | | | |
| 기타 | | | |

| | | |
|--------------|-----------|--------------|
| 총 합 계 | 9명 | 7,550 |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 계 |
|----------|---------------------------------|--|------|----------|
| 01 | 남가주 | 이병준(3,000) 정인환(200) 오길평(200) | 3 | 3,400 |
| 03 | 샌프란시스코 | | | |
| 04 | 뉴욕(NY, NJ, PA 일부 CT) | 이재덕(200) | 1 | 200 |
| 05 | 시카고 (IL, IN, WI, MO, MI, OH) |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이용락(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욱(200) | 13 | 14,400 |
| 06 | 워싱턴 DC (MD, VA) | 권철수(500) 박윤수(1,000) | 2 | 1,500 |
| 07 | 워싱턴주 | | | |
| 08 | 휴스턴 | | | |
| 09 | 달라스 | | | |
| 10 | 미네소타 | | | |
| 11 | 조지아 | | | |
| 12 | 아리조나 | | | |
| 13 | 유타 | | | |
| 14 | 하와이 | | | |
| 15 | 오레곤 | 조충훈(200) | 1 | 200 |
| 16 | 기타1(서부) | | | |
| 17 | 기타2(중부) | | | |
| 18 | 기타3(동부 & 캐나다) | | | |
| 19 | 필라델피아 | 이상봉(200) 정정수(200) | 2 | 400 |
| 20 | 뉴잉글랜드 | 변화경(300) | 1 | 300 |
| 21 | 하트랜드 | | | |
| 22 | 중부펜실바니아 | | | |
| 일반 이사 합계 | | | 22 | \$17,400 |
| 종신 이사 합계 | | | 1 | \$ 3,000 |
| 총 계 | | | 23명 | \$20,400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8월16일~9월27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흥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락, 이전구, 이청광
정태

장기남 (문리대 62입) \$500
임춘수 (의대 57입) \$500
권철수 (의대 68입) \$500

300달러이하

이정일 (농대 57입) \$200
최호승 (사범대 58입) \$200
이상봉 (문리대 65입) \$200
오길평 (치대 61입)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8월 16일~9월 27일)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 임춘수 (의대 57입) \$200
- 변우진 (인문대 81입) \$100

관악후원금

- 장기남(문리대 62입) \$500
- 임춘수(의대 57입) \$500
- 권철수(의대 68입) \$500
- 이정일(농대 57입) \$200
- 최호승(사범대 58입) \$200
- 이상봉(문리대 65입) \$200
- 오길평(치대 61입) \$200

회보구독료

- 서상현(의대 71졸) \$100
- 이선구(문리대 65입) \$100
- 김향자(약대 61입) \$50
- 최예섭(치대 45입) \$50
- 김재신(음대 60입) \$50
- 박취서(약대 60입) \$50
- 강영빈(문리대 58입) \$50
- 임택선(공대 52입) \$50
- 김광근(치대 59입) \$50
- 오길평(치대 61입) \$50
- 김진호(약대 64입) \$50
- 정유석(의대 58입) \$50
- 강항운(농대 52입) \$50
- 박장생(의대 54입) \$50
- 이삼민(문리대 58입) \$50
- 홍정표(음대 67입) \$50
- 이범세(의대 51입) \$50
- 김정일(의대 57입) \$50
- 조형원(약대 54졸) \$50
- 박창훈(공대 66입) \$50
- 정남재(사범대 56입) \$50
- 임재일(농대 64입) \$50
- 이정일(농대 57입) \$50
- 장기남(문리대 62입) \$50
- 김봉오(법대 74입) \$50
- 변우진(인문대 81입) \$50
- 최동근(문리대 50입) \$50
- 노인규(의대 52입) \$50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 명 단 |
|----------|-----------------------------|-----------|--|
| 01 | 남가주 | 23 | 김향자(약대61입) 최예섭(치대45입) 김재신(음대60입) 박취서(약대60입) 강영빈(문리대58입) 임택선(공대52입) 김광근(치대59입) 오길평(치대61입) 김진호(약대64입) 정유석(의대 58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59입) 신정자(사범대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
| 03 | 샌프란시스코 | | |
| 04 | 뉴욕(NY, NJ, PA일부CT) | 6 | 박장생(의대54입) 이삼민(문리대58입) 홍정표(음대67입) 주성문(의대58입) 이찬서(자연대82입) 곽선섭(공대61입)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18 | 조형원(약대 54졸) 박창훈(공대 66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이범세(의대57입) 임재일(농대 64입) 이정일(농대5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57입) 서상현(\$100, 의대71졸) 조중행(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졸) 최동규(법대 79입) 이용락(공대 48입) 이승자(사범대 60입) 임이섭(\$100, 미술대 54입) 손기용(의대 68입) |
| 06 | 워싱턴 DC (MD, VA) | 2 |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섭(상대 68입) |
| 07 | 워싱턴주 (WA) | 2 |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
| 08 | 휴스턴 (HOUSTON, TX) | | |
| 09 | 달라스 (DOLLAS, TX) | 1 | 김인호(공대 47입) |
| 10 | 미네소타 (MN) | 3 |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62입) |
| 11 | 조지아 (GA) | | |
| 12 | 아리조나 (AZ) | | |
| 13 | 유타 (VT) | | |
| 14 | 하와이 (HI) | | |
| 15 | 오레곤* (OR) | 2 |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
| 16 | 기타 (중부) | | |
| 17 | 기타 (중부) | | |
| 18 | 기타 (동부 & 캐나다) | 1 | 이종진(공대 55입) |
| 19 | 필라델피아 (PA) | | |
| 20 | 뉴잉글랜드 (MA) | 2 |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
| 21 | 하트랜드 | | |
| 22 | 펜실바니아 | | |
| 계 | | 60 | \$3,150 |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동창회와의 전산망 설치를 위한 설문서 (#1)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 동창회간 신속한 전산망을 구축해 통신의 신속원활을 기하고, 동창회보 기사 취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 지역 동창회

<지역 회장님>

성명(한글, 한문, 영문)/전공학과
주소:
전화 (주택, 직장, Hand Phone)
e-mail :
Fax :

<지역동창회 총무님> (또는 지역동창회보 간행물 담당동문)

성명 :
주소 :
e-mail :
Fax :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2)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VI)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1)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하여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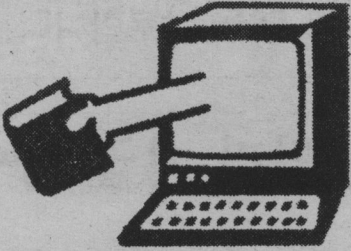
e-mail :

Fax :


기타 의견란

www.aladdin.com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1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 | |
|----------------------------|-----------------------------------|---|
| 지 부 | 회 장 |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
| 뉴욕 |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 한영우 B:718-463-9100 H:914-592-5448 |
| 남가주 | 이청광 B:626-795-7988 H:818-888-9772 |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
| 샌프란시스코 | 김은종 B:510-567-8800 H:925-736-5516 | 임승쾌 B:415-777-1133 H:510-537-5369 |
| 시카고 | 조대현 B:630-972-4595 H:630-920-2201 | 장영수 B:630-252-4076 H:630-357-6275 |
| 뉴잉글랜드 |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06<ext.3038> |
| 조지아 |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
| 미네소타 |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
| 워싱턴 DC | 문성길 B:703-914-2000 H:703-893-0855 | 송상희 B:703-974-7194 H:703-503-0864 |
| 워싱턴주 | 황수택 B:253-627-8680 H:253-927-8668 |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
| 휴스턴 | 이옥배 B:281-491-8972 H:281-265-2822 |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
| 달라스 | 최근자 B:214-665-8345 H:972-403-1269 |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
| 아리조나 |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
| 하와이 |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
| 유타 |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
| 오레곤 | 박창성 B:503-692-6747 H:503-579-8492 |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
| 필라델피아 |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
| 하트랜드 | 김호원 B:913-451-4999 H:913-897-5365 | 이 옥 B:814-862-0494 |
| 중부펜실베이니아 |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
| 캐나다/온타리오 |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 최승선 B:604-584-5067 |
| 캐나다/밴쿠버 | 임승용 B:604-542-0595 | |
| 캐나다/에드먼턴 | 정기진 B:780-437-7669 | |

동문 사업제 안내

| | | | | | |
|---|--|---|--|---|---|
| <p>강관</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총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학상담</p> <p>IBECONS INT L 김재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교역</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융/용지</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p> <p>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변호사</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 <p>김용학 변호사 김용학(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원 수의과(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원 심장외과</p> <p>Rim and Sul, MDPC 임훈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I</p> <p>병원 심장정맥과</p> <p>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원 위장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원 지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보석</p> <p>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보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성주경(상 68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희망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설계</p> <p>NKP Architectures 남신우(공 61입) (908)636-4800 Woodbridge, NJ</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총 67입) (310)404-1848 Cerritos, CA</p> |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염색</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송통관</p> <p>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용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구</p> <p>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완(총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 <p>인터넷 사업</p> <p>Aladdin USA 이형렬(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사무지 부품</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전자</p> <p>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민의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화장품</p> <p>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화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No.()

※미주 관악후원이사에게는 동창회보 구독료 면제합니다.
수표에 Payable to 'SNUAA in the USA' 그리고 '2001년 구독료' 라고 명기바랍니다.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동창회 돕기 1백만달러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3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 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Check Payable to :
SNUAA in the USA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ynlee@htrdlt.com